



도심속  
한옥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16 Korea Hanok Competition



## 진행과정

공모 공고	2016. 5. 1
참가등록 및 작품접수	준공·사진·계획부문 (2016. 7. 25 - 7. 29)
심사	준공부문 (1차 8.5 / 2차 8.30 - 8.31) 사진부문 (8. 5) 계획부문 (1차 8. 5/ 2차 8. 29)
시상식	2016. 10.18
전시회	2016. 10. 18 - 23

## 운영위원/심사위원

### 운영·심사위원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이강훈 교수

계명대학교 전통건축학과

류성룡 교수

월간 space

윤준환 작가

조성욱건축사사무소

조성욱 소장

건축디자인실험집단 EON

함성호 소장

## 기획의도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 도심 속 한옥

“근래의 경향은 일반이 개량식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마는, 개량이라면 별것이 아니라 종래 협착하던 정원을 좀 더 넓게 하여 양기가 바로 투입하고 공기가 잘 유통하여 한열 건습관계 등을 잘 조절함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관도 미술적인 동시에 사용상으로도 견확하고 활동에 편리하며 건축비, 유지비와 생활비 등의 절약에 유의함이 본사의 사명인가 합니다. 재래식의 행랑방, 장독대, 창고의 위치 등을 특별히 개량했고, 또 한편으로 중류 이하의 주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년부, 월부의 판매 제도까지 강구하여 주택난에 대해서는 다소의 공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권 글, 「경성편람」(1929), “건축계로 본 경성” 중〉

한 세기 전 도시 한옥이 추구했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쾌적한 환경, 저렴한 건축비, 합리적인 평면계획, 부동산 대책까지 1929년의 문제의식을 다시 음미해보자. 도심에 지어진 한옥은 근대기의 도시, 건축, 주택문제를 온 몸으로 받아내며 자세를 바꾸고 생각을 돌렸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신화에 매몰되거나 허황된 희망을 쫓은 것이 아니고 현실에 발을 딛고 새 시대를 개척하는 치열한 고민의 결과였다. 지금 우리는 그때처럼 다시 한 번 건축과 도시를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여전히 도심 속 한옥은 필요하고 유효한 것인가?

## 차례

진행과정 / 운영 및 심사위원	2
기획의도 / 차례	3
심사위원장 심사평	4

###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8
올해의 한옥상	12

### 사진부문

일반인	대상	22
	특별상	24
	금상	26
	은상	28
	동상	30
	입선	32
청소년	특별상	38
	금상	40
	은상	42
	동상	44
	입선	46

### 계획부문

대상	50
특별상	54
금상	56
은상	58
동상	62
입선	68

## 심사위원장 심사평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넘어 현대 건축·도시문화의 한 조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옥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6번째를 맞이한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계획부문, 준공부문, 사진부문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올해는 특히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통합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운영·심사위원회는 총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저를 포함하여 류성룡 계명대학교 교수, 함성호 건축디자인실험집단 EON 대표, 조성욱 조성욱건축사사무소 대표, 윤준환 월간SPACE 사진작가가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 3월, 공모전 기획 및 추진을 위한 첫 만남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도심 속 한옥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보고자 '도심 속 한옥'을 계획부문의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준공 및 사진부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폭넓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작품접수 결과 준공부문은 9작품, 계획부문은 54작품, 사진 부문은 692작품, 총 755작품이 접수되어 한옥공모전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문별 심사결과, 준공부문은 1차 심사에서 6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심사는 1박 2일 간의 현장심사로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건축주, 건축사, 시공회사 등을 만나며 도면상으로는 볼 수 없었던 출품작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의 한옥대상 「목경헌」은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에 신축한 단독주택입니다.

목경헌은 건축주가 선택한 비정형대지에서 거실을 중심으로 직교형의 채들이 만나는 다양한 마당들의 짜임새 있는 배치, 향나무·돌·흙·물 등 조경요소들의 빼어남, 의도된 화방벽과 골목길의 조화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또한 바닥 레벨을 달리하는 1층 거실의 벽난로 공간, 2층의 침실을 이어주는 연결복도, 기와지붕과 주변 풍경의 조망, 지하의 천창으로 쓰이는 거실 툇마루 유리바닥 등 풍부한 공간감각 체험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목경헌에서 건축주의 집에 대한 열정과 건축가·시공자에 대한 신뢰를 온몸으로 느끼고, 현대 다층구조 한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한옥상 「화서문로 41번길 20주택」은 수원시 팔달구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로 긴 협소한 대지에 지어진 단독주택입니다.

방과 대청, 안채와 안마당, 사랑채와 사랑마당, 별채와 담의 관계를 고저차가 있는 대지에 순응하면서 공간구성의 입체적 변화와 연속성을 짜임새 있게 풀어낸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건축사는 물론 목수의 열정과 재치도 돋보였던 주택으로 향후 이 지역 한옥의 모범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또 다른 올해의 한옥상 「SIDE」는 서울시 종로구 서촌의 기존 한옥을 게스트 하우스로 리모델링한 사례입니다.

이 작품은 100여년 된 한옥의 구조와 급경사지의 돌·나무 등 기존의 대지조건을 되살리는 한편 주변의 빼어난 조망을 끌어들이는 점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창호 등 일체의 한옥 디테일과 장식을 배제한 채, 절제되고 현대적인 내·외피체계를 도입하여 제한된 예산과 작가의 고집으로 한옥을

보다 현대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실험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이상 수상작들은

華而不侈(화이불치), 화려한 듯 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고, 儉而不陋(검이불루) 검소하게 절제되었지만 누추하지 않은,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각 지역의 모범사례는 물론 향후 다른 지역의 유사사례에 대한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수상작이 주거건축에 국한된 아쉬움은 다음 해를 기대합니다.

계획부문은 1차 심사에서 본상 후보 8작품을 선정하였고, 작품별 발표심사를 통하여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룰:한옥을 위한 비한옥」은 경북궁 서측지구 체부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재구축을 제안한 작품입니다.

(1)최고높이의 제한 (2)면적(합필)에 대한 규제 (3)필지의 합필과 분할에 따른 외부공간 (4)건축적 구축방식 이상 4개 룰과 이에 따른 평면, 배치, 서촌 풍경에 대한 제안과 전략이 탁월하였습니다. 한옥과 그 주변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낸 점이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다른 계획부문 수상작들도 당장 실현해도 좋을 정도의 현실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장소, 주제, 전개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옥의 구조방식, 현대적 삶의 방식과 스케일, 칸(間)의 구조적·기능적·미학적 역할 등에 대해서는 향후 참가자들이 더 깊이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진부문은 일반인 부문과 청소년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하였습니다.

사진부문에서는 전국에 걸쳐 다양한 장소의 한옥 공간과 장면들을 담은 사진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간성과 장소성의 순간 포착이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가있는 듯한 혹은 가보고 싶게 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대상 수상작인 「점·선·면」은 창덕궁 신선원전의 다양한 지붕형태의 주종관계, 담과 마당이 이루는 형태와 공간, 사잇공간의 대비와 조화를 묘한 시점에서 포착한 빼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옥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에서 담아낸 뛰어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공모전의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 지적하여야만 할 점은 한옥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인 내부공간과 디테일의 표현, 그리고 내부에서 바라보는 외부공간을 묘사하는 작품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옥은 특히나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서의 생활, 안에서 밖을 보는 장면도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한옥공모전의 수상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LH공사, 그리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 직접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부터 2017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 어떤 작품들이 출품될까 기대됩니다.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항상 우리의 땅, 우리의 한옥문화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에 맞서 한옥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장 이강훈  
충북대학교 교수





준공부문





# 목경현

## 목경현

'목경현'은 은평한옥마을에 신축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한옥 살림집이다.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비정형의 대지 위에 계획된 이 집은 남북으로 적절한 크기의 앞마당과 뒷마당을 가지고 있다. 집의 양측 면에는 전벽돌을 쌓아 화방벽을 만들었다. 서쪽 화방벽은 벽돌 다공쌓기를 통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도로에 길게 접하여 주출입구가 있는 동쪽 화방벽은 의도된 불규칙한 개구부로 집 안쪽으로는 현대적인 공간감을, 바깥으로는 색다른 골목길 풍경을 제공한다.

주택의 주 공용공간인 거실과 식당은 앞마당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공간감을 가진다. 거실은 위로 뚫려 있어 2층의 연결통로, 지붕의 서까래와 함께 2층 한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간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식당은 좁고 긴 행랑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했다.

2층은 연결통로 사이로 양 옆으로 자녀 방이 있고, 각각의 방에서 거실 쪽으로 설치된 들어열개 창을 열면 풍성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바깥 풍경과 함께 어우러진 1층 기와지붕의 아름다움은 2층 한옥이라 즐길 수 있는 멋진 창밖 풍경이다.

지하 1층은 다목적 공간으로 현대적인 공간 분위기로 구성했다. 천창과 그 위의 투명한 쪽마루를 통해 자연광을 들게 했다. 또한 지하에서도 한옥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목경현은 근대화 과정에서 애초에 상업용도로 등장했던 2층 한옥이라는 유형이 도시화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층 주거용 현대 한옥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설계자 (주)황두진건축사사무소  
(황두진)

시공자 (주)고진티엔시

건축주 배윤목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21

주요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280.3m<sup>2</sup>

건축면적 89.10m<sup>2</sup>

연면적 178.98m<sup>2</sup>

건폐율 31.78%

용적률 45.53%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설계기간 '13년 8월 23일  
~ '14년 4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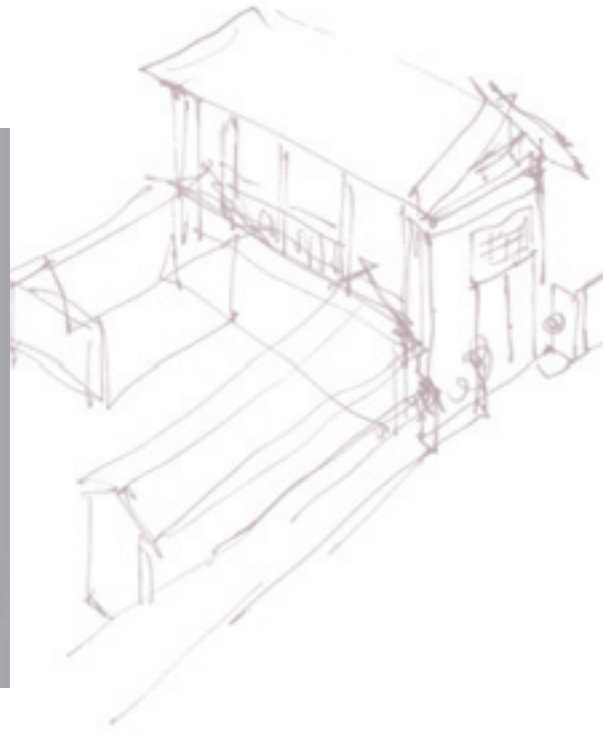
공사기간 '14년 7월 7일  
~ '15년 6월 9일

사진 박영채

배치도



평면도(지하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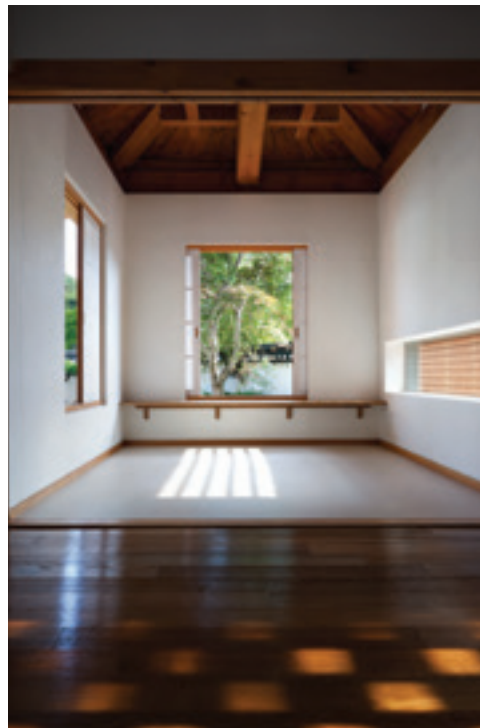
평면도(1층)



평면도(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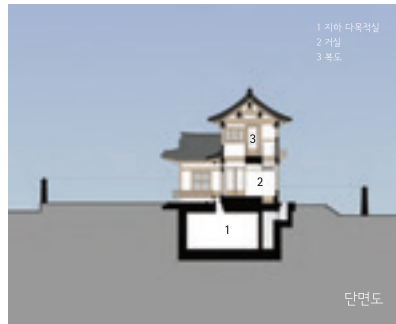


주출입구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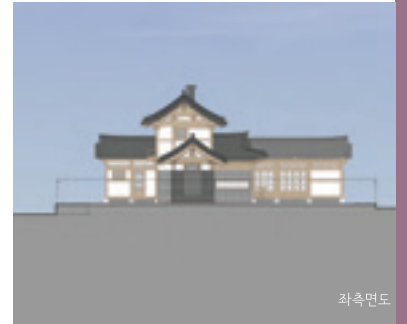


1 지어 다목적실  
2 거실  
3 복도

단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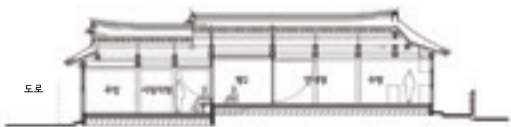
2층 복도



단면도



도로  
횡단면도-1



도로  
횡단면도-2



종단면도



남쪽입면도



서쪽입면도



남쪽 전경



공사중인 가구 상세

# 화서문로 41번길 20 주택

## 순응(順應)

“모든 만물은 내재적 질서가 있다”

기운에는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있다. 주거에서 기운이 가장 응집된 곳은 이 두 기운이 만나는 마당이다. 마당은 건물을 모두 배열하고 남은 자투리땅에 조성하는게 아니라, 기운이 충만한 곳에 마당자리를 먼저 결정하고 건물을 계획한다.

집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땅의 생김새다. 이 땅은 細長化되어 있기에, 1개의 마당을 조성하기보다는 2개의 마당으로 공간을 구획하였다. 2개의 마당으로 조성하다보니 주·종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고서를 보면 공간에는 主와 從이 있다. 공간에도 위계와 질서가 있다. 陽宅論에는 體用이라는 말이 있는데, 體는 집의 주체로 안채를 뜻하며, 用은 쓰임을 뜻하는 것으로 사랑채를 말한다. 따라서 안채(主)는 커야하며 사랑채(從)는 작아야 한다.

이 땅은 약간의 고저차(高低差)가 있는데, 도로면이 낮고 안쪽 깊숙한 부분으로 갈수록 높다. 두 개의 마당은 고저차에 따라 마당의 쓰임과 역할이 결정되었다. 마당의 주종관계가 결정되고 안채(主)와 사랑채(從)가 결정되면서 설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당이나 건물의 높이와 공간크기에서 지붕형태, 박공과 창호의 장식에 이르기 까지 정해진 위계질서 안에서 그 쓰임을 결정하였다. 사랑채 맞은편은 객이 주로 머무는 특별한 공간(별채)으로 계획하였다.

이 집은 마당을 통해 우주(땅과 하늘)의 기운이 안대청과 사랑대청으로 전달된다. 이 우주의 기운이 실내에서도 서로 통하도록 공간을 조성하였다. 안채와 사랑채의 실내공간은 대청이 중심이 되는데, 안대청이나 사랑대청에 있으면 대지 내의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막힘없이 설계하였다. 반면,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하는 방의 후미진 가장자리에는 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측창을 두어 땅의 기운을 받도록 하였다. 모든 방에는 수납을 위한 반침을 측창 상부에 설치하였다.

이 주거의 모든 설계는 설계자의 의도대로 인위적으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정해진 내재적 질서에 따른 것뿐이다.

#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상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하오(김세원), 안국진(수원시정연구원)
시공자	서울한옥(황인범)
건축주	황군자, 선봉규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41번길 20
대지면적	261.0m <sup>2</sup>
건축면적	130.2m <sup>2</sup>
연면적	130.2m <sup>2</sup>
건폐율	49.8%
용적률	49.8%
구조	한식목구조
층수	지상1층
용도	단독주택



사랑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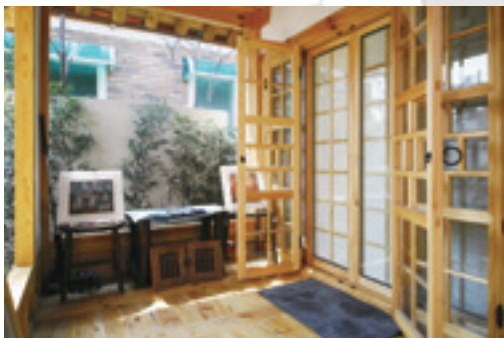
사랑대청



대문



대문에서 본 사랑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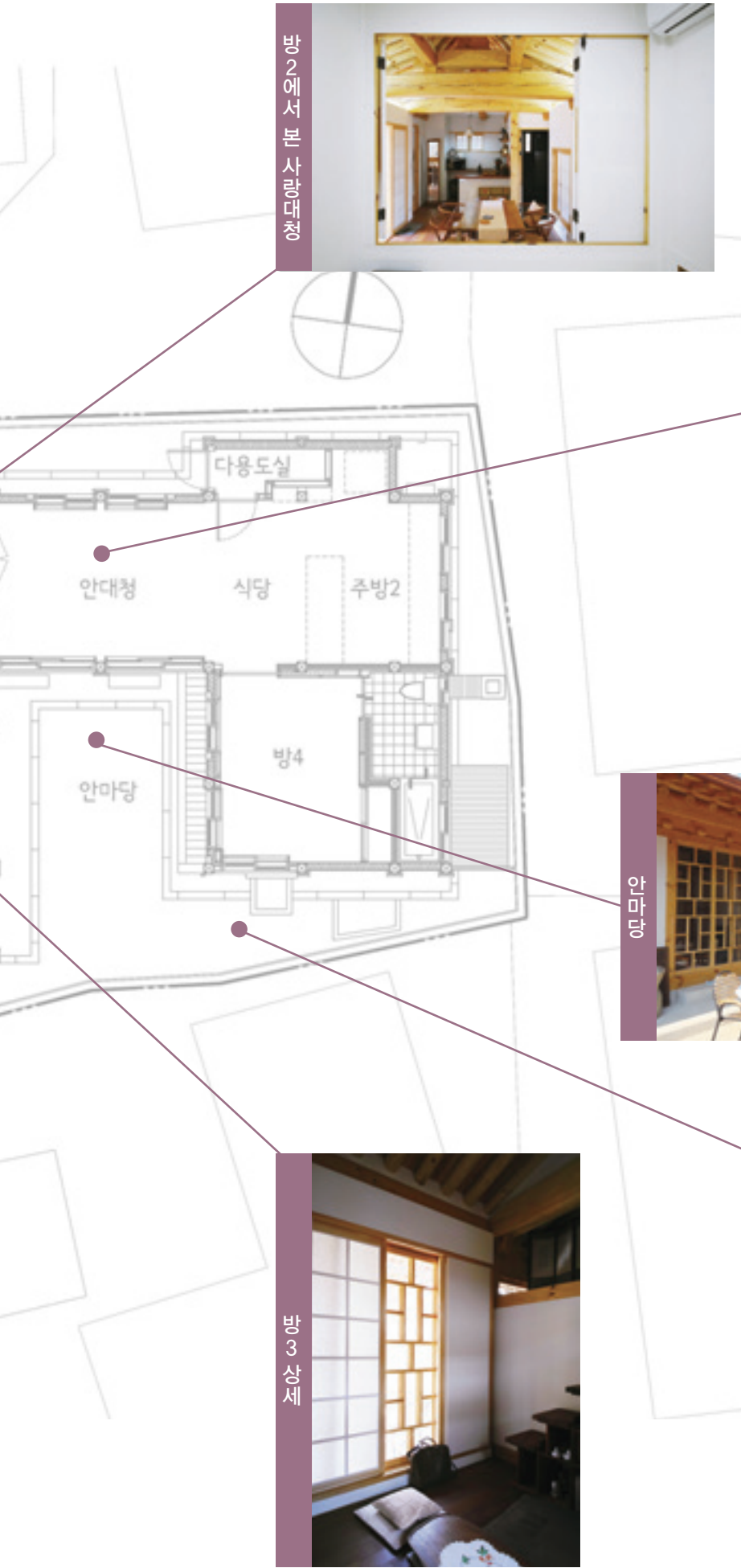


별채 마루상세



중문상세





방2에서 본 사랑대청



안대청 천장

안대청과 방2



안마당



방3 상세



안마당에서 본 중마당





# SIDE

## SIDE

한옥레지던스호텔 SIDE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상의 절친한 벗이었던

고(故) 구본웅 화백이 거주하였던 곳으로 추정되는 서촌의 오래된 도심한옥을 리노베이션하였습니다.

100여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한옥에는 시간의 흔적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소중한 흔적들을 간직한 오래된 한옥을 리노베이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전통의 틀 안에 금속과 유리 등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여 옛 것과 현대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최소한의 것을 삽입하여 조건 안에서 최대한의 변화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한옥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인 차경,

내부에서 창을 통해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상

설계자 및  
시공자 **이용재아키텍츠(이용재)**

건축주 **박용수**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7-5**

대지면적 **413.2m<sup>2</sup>**

규모 **지상 1층**

건축면적 **313.54m<sup>2</sup>**

건물면적 **115.5m<sup>2</sup>**

연면적 **115.5m<sup>2</sup>**

건폐율 **27.95%**

용적률 **27.95%**

최고높이 **4.5m**

공법 **목구조**

평면도



단면도









# 사진부문

- 일반인



#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점·선·면Ⅱ

수상자 김용준

촬영장소 서울 창덕궁 신선원전





## 특별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북촌의 저녁

수상자

오한솔

촬영장소

서울 북촌한옥마을



# 금 상



## 초가의 봄

수상자  
촬영장소

남기욱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



## 한옥의 미

수상자      허남용  
촬영장소    경남 양산시 통도사

# 은상

## 겹겹이

수상자

김태현

촬영장소

충남 서산시 개심사





## 시간의 파도

수상자     이정규  
촬영장소   서울 경복궁

# 동상

한옥을 돋보이는 한복

수상자

최신규

촬영장소

서울 북촌한옥마을





## 창 넘어 풍경

수상자 이연규  
촬영장소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 도심 속 한옥 화랑

수상자 민경찬  
촬영장소 서울 경복궁



# 입선

## 불타는 한옥마을

수상자 유광현  
촬영장소 전북 전주한옥마을



## 한옥 숙박체험

수상자 오재상  
촬영장소 전북 전주한옥마을





## 한국의 미

수상자      조성민  
촬영장소    서울 창경궁



## 유효

수상자      김지수  
촬영장소    서울 인사동

# 입 선

## 단아함

수상자 박용락  
촬영장소 부산 범어사



## 햇살

수상자 김정윤  
촬영장소 경북 영천시 은해사 운부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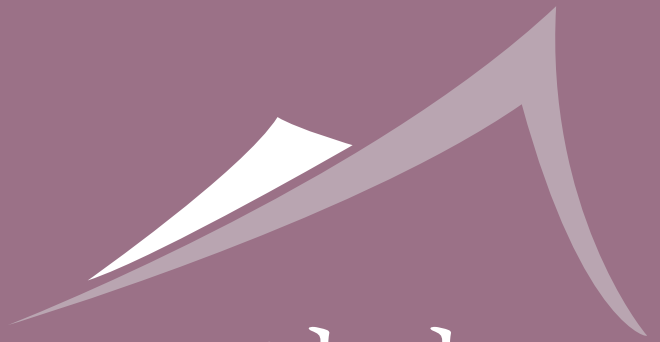
## 도심 속에 한옥

수상자 김룡  
촬영장소 서울 북촌한옥마을



## 눈내리는 한옥마을

수상자 이새미  
촬영장소 전북 전주한옥마을



# 사진부문

- 청소년



## 특별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 이향로 생가

수상자 이준원  
촬영장소 경기 양평군 이향로 생가





# 금상



송도의 한옥과 양옥

수상자

박비오

촬영장소

인천 송도한옥마을



## 경회루에서 바라본 경복궁

수상자      박은기  
촬영장소    서울 경복궁

# 은상

## 경복궁의 부드러움

수상자 김세빈  
촬영장소 서울 경복궁





## 한옥과 달

수상자    신동영  
촬영장소    서울 북촌한옥마을

# 동상

## 번짐1

수상자

김선주

촬영장소

서울 북촌한옥마을





## 정겨운 한옥풍경

수상자      안채영  
촬영장소    전북 전주한옥마을



## 고요의 돌담길

수상자      김영호  
촬영장소    서울 남산골한옥마을

# 입선

## 光

수상자 김예린  
촬영장소 서울 광화문



## 한옥의 조화

수상자 김태경  
촬영장소 강릉 선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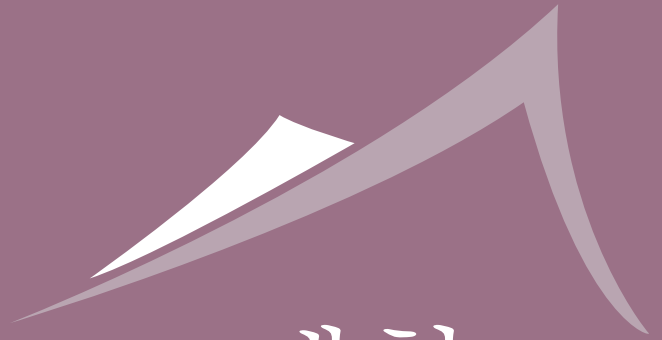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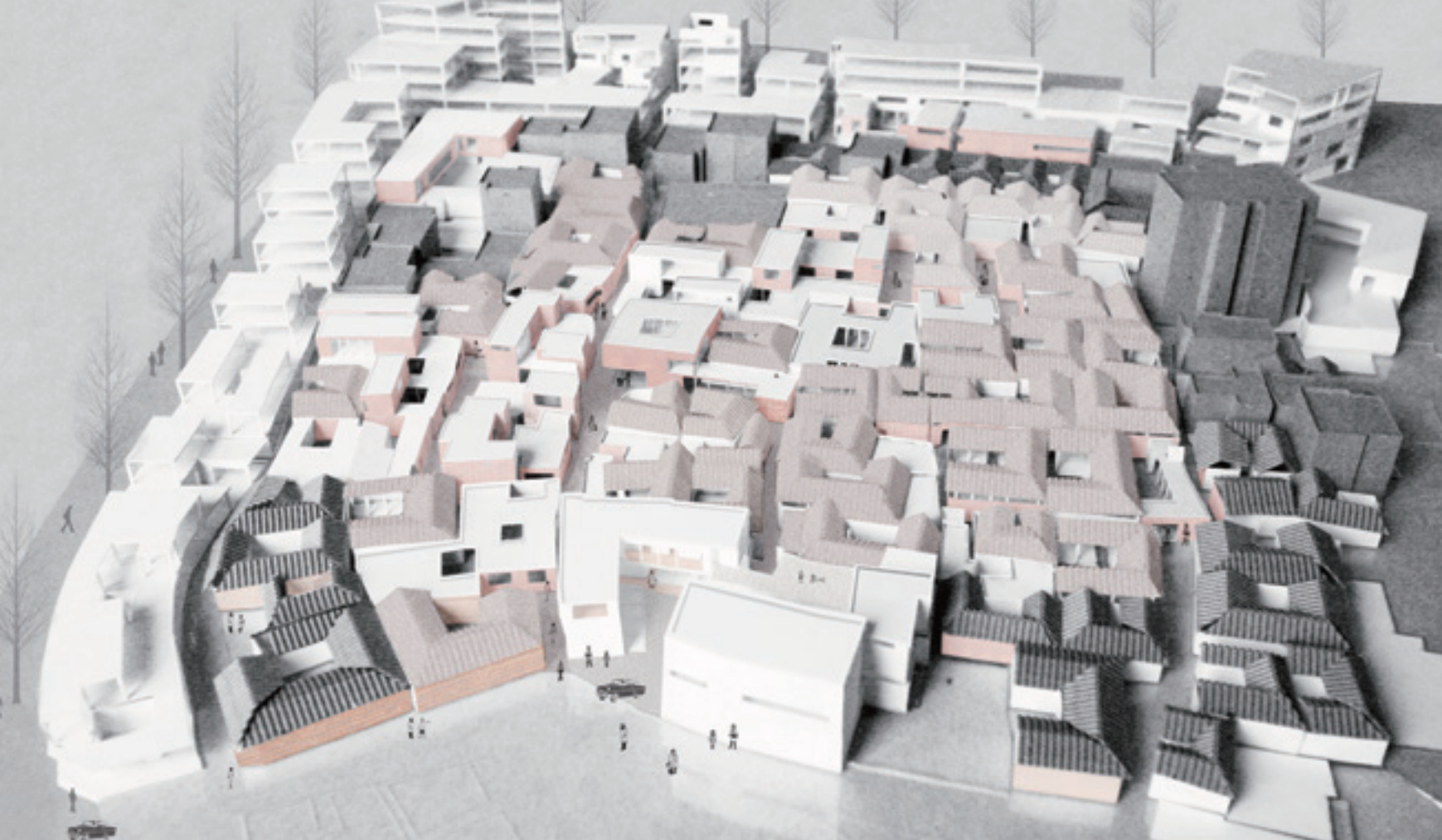
## 달보드레 휴식

수상자      문형곤  
촬영장소    서울 인사동





계획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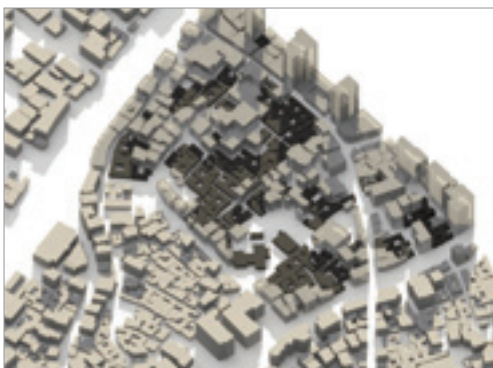
## 룰-한옥을 위한 비한옥

본 작업은 도시한옥이 밀집된 동네에 비한옥 건물이 들어설 때 형태적인 한옥군집의 파괴뿐 아니라 기존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자체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시작되었다. 근현대 도시한옥의 내부공간이 현대의 주거생활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하기도 전에, 오랫동안 도시적경관을 만들어낸 도시한옥이 군집이 아닌 개별로 살아남기에 이미 주변환경이 무자비하게 압도적으로 팽창되어 있다.

‘도시한옥의 파괴된 군집을 한옥이 아닌 건축물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가 본 작업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다. 도시한옥 밀집지구 (사이트: 경북공서축지구 체부동 일대)에 도시한옥이 아닌 ‘비한옥건물’이 신축되는 경우 한옥과 비한옥의 중간지대로서 작동할 수 있는 4가지 도시적 룰(Urban Rule)을 다음과 같이 재정립하고, 대상지 전체 필지에 룰이 모두 적용되었을 때 회복되는 도시의 풍경을 제시하였다.

### 룰 1: 높이 (규제)

용도지구가 달라 합법적으로 상업건물의 집합체가 도시한옥을 장벽처럼 막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남아있는 사이트의 한옥을 분석하고 하루 4시간 이상 모든 한옥 마당에 채광이 들어야 한다는 전제로 인접 비한옥 필지가 지켜야 할 최고 높이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최종적으로 기존 높이제한 보다 점진적인 높이 변화가 생기며 이 일대의 최고 높이(층수)는 6층까지 허용된다.



고층빌딩이 북쪽 한옥 군집을 장벽처럼 막고 있는 현재의 상황



높이 규제 제안

#### Rule 1 높이

개별 필지의 최고 높이를 제한한다.



# 계획부문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 물-한옥을 위한 비한옥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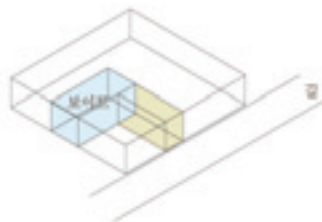
### 룰 2 & 3: 면적과 외부공간 (권장)

도시한옥의 소규모 필지들을 체부동의 도시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면적 (urban grain)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토대로 비한옥 필지들을 분류하여 최대한 기본면적 범위내에서 최대한 마당형 보이드를 신축을 하도록 하고, 상업지구에서 불가피할 경우 합필을 허용하되 공공보행로를 구성하게끔 하였다.

#### Rule 2 면적

개별 필지의 최고 높이를 제한한다.

- 합필을 허용하지 않는다.
- 최대 800m<sup>2</sup>까지 허용한다.
- 최대 1200m<sup>2</sup>까지 허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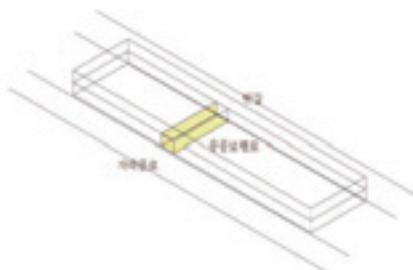
[Type 1] 마당형 보이드

- 면적
- 위치  주거  상업  상업2

기존 도시한옥과 유사한 면적과 높이와 보이드를 가진 형태

#### Rule 3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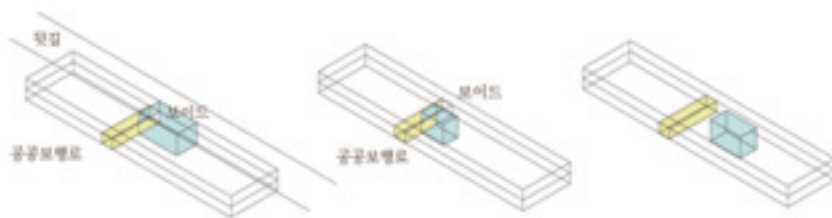
- 주변 필지와와의 합필을 권장한다.
- 필지의 크기와 형태, 진입방식, 길과 주변 조직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한다.
- 이미 합필이 진행된 필지이므로 필지의 분할이나, 대지내에서 건물의 공간을 한옥 조직을 기준으로 매스를 분할하는 것을 권장한다.



[Type 2] 필지를 관통하는 공공보행로

- 면적  800m<sup>2</sup> 미만
- 위치  상업  상업2

매스의 분절을 통해 기존 도시조직의 회복



[Type 2+] 필지를 관통하는 공공보행로와 마당형 보이드

- 면적  1200m<sup>2</sup> 미만
- 위치  상업  상업2

개인의 재산권과 신축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최대한 도시조직에 회복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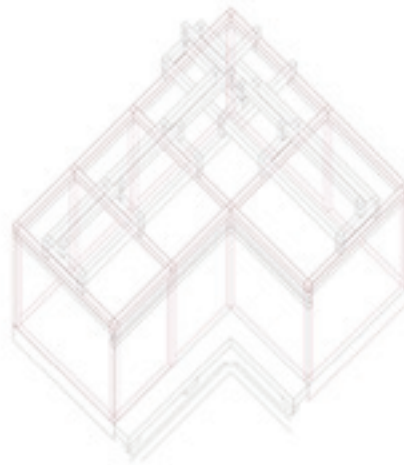
4-1. 내부입면



4-2. 외부입면



4-2. 외부입면 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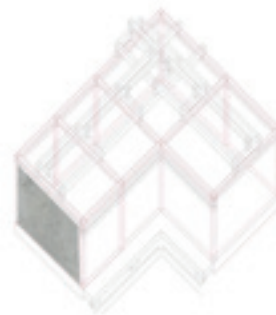
기존 도시한옥의 구조(부분)



기존 도시한옥의 구조



4-3. 외부입면(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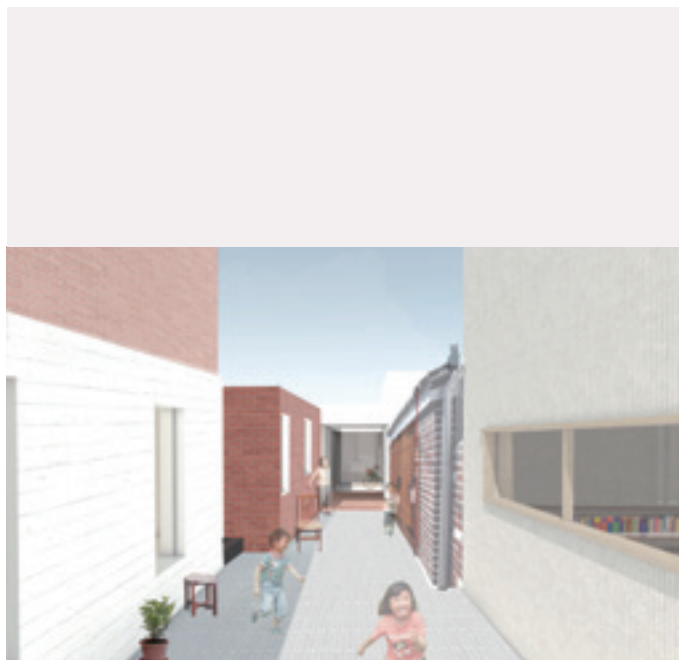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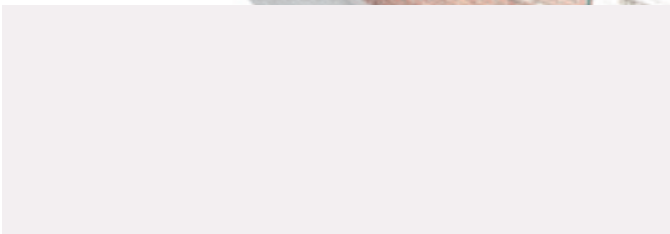


4-2. 외부입면(콘크리트)



4-1. 내부입면(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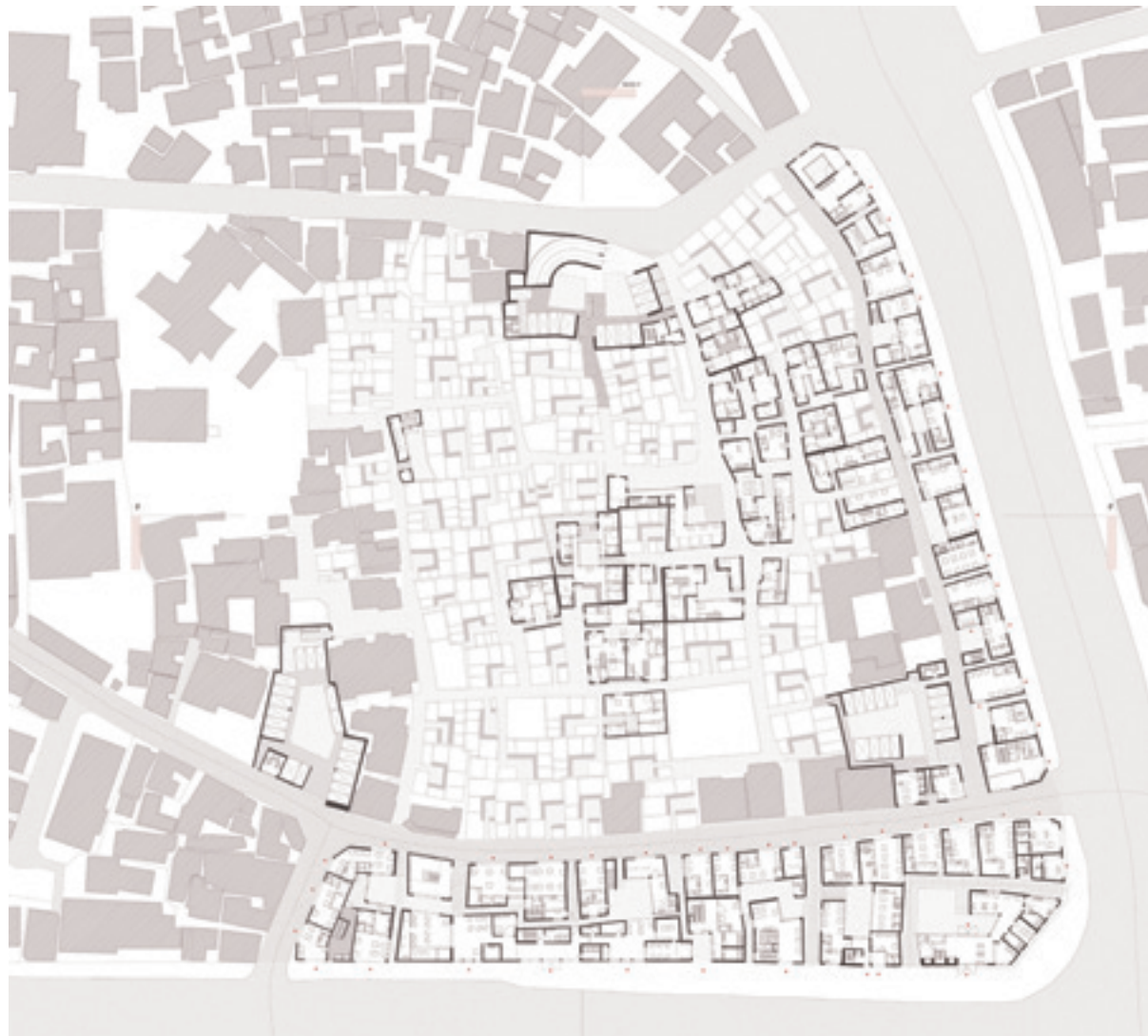
부분콜라주



# 개별 필지에 대한 프로파일



대상지 전체 필지에 룰이 모두 적용되었을 때 평면도





**ISSUE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목표는 이 땅에 오랫동안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 해온 ‘한옥’이 도시경관의 연속된 흐름에, 도시의 밀도있는 땅에 적응하고, 한옥의 스케일을 유지한 채로 오늘날 현대 도시의 거대한 공간프로그램을 수용할 지 고민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을 통해 사라져가는 옛 골목길을 활성화시키고 서로 연결시켜 사이트 주변 일대의 지역적 소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한옥이 어떻게 도시경관에 녹아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다. 그동안 옛 한옥이 보여주었던, 도시가 아닌 자연 속에서의 한옥의 이미지에 주목하기보다 ‘도시’라는 건축적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옥이 보여주었던 밀도있는 땅에 대한 대응에서 잠재 가능성을 찾아내었다.

‘어쩌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옥의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이 아닐까?’

한옥이라는 공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도시의 밀도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그 변화의 모습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돈화문로와 마주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와룡동, 익선동, 북촌 일대 60~70년대 도심형 한옥들과, 창덕궁, 그리고 현대건물들이 펼쳐져 있는 땅이다. 이 사이에 존재하는 피맛길을 포함한 옛 골목길을 살려내고 이 골목길을 중심으로 지역적 활성화가 일어나길 바랐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을 반영하여 옛 도심형 한옥의 스케일을 가진 작은 채와 채들의 조합으로 구성해내고, 그 채와 채 사이에 자연스럽게 골목이 형성되고 기존에 존재하던 골목길과 연장된다.

사이트의 전방에는 창덕궁이라는 거대한 사적경관이 존재하고, 후방에는 거대한 매스를 시작으로 도시경관이 존재하는, 서로 상반된 경관이 존재한다. 전체적인 매스의 크기는 도시에 적응하고, 밀도 있는 땅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을 2층 장옥으로 구성했고, 돈화문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후방에 펼쳐지는 도시적인 경관에 대해서도 대응을 했다. 전방의 장옥은 후방의 작은 스케일의 한옥과 치환될 수 있다. 도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전면에 새로운 파사드로서 자극제 역할을 한다.

**CONCEPT DIAGRAM**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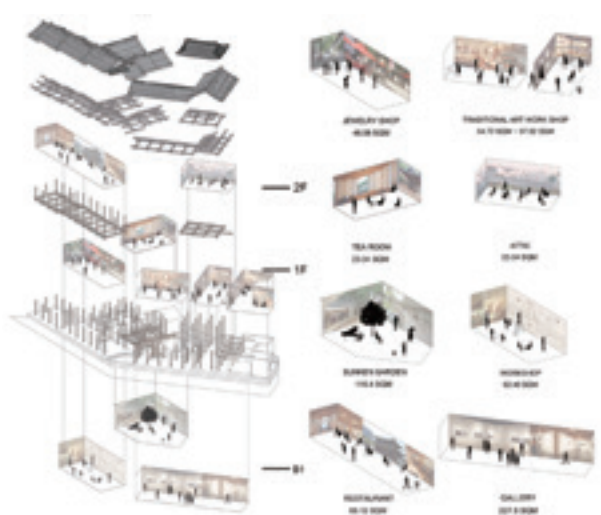
도심형 한옥 스케일



골목길 형성/기존의 골목길과 연결

사적경관, 도시경관에 대한 대응

**SPACE DIAGRAM**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간의 골격입니다. 기존의 골목길을 연결하고, 그 골목길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PERSPECTIV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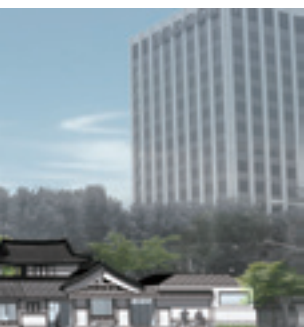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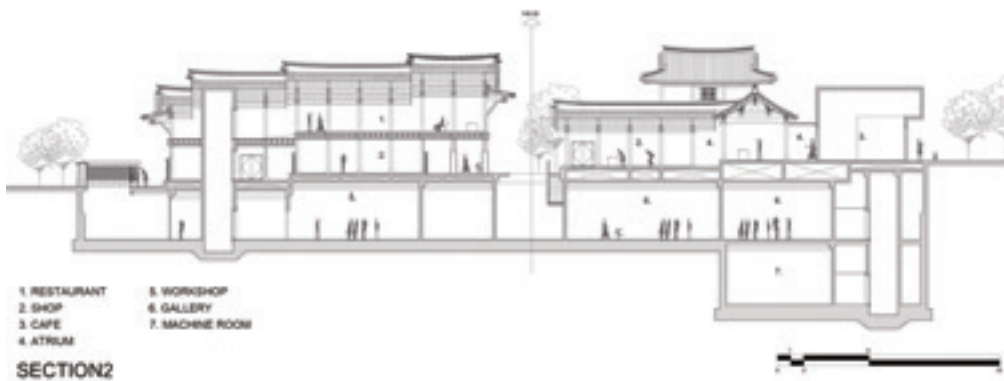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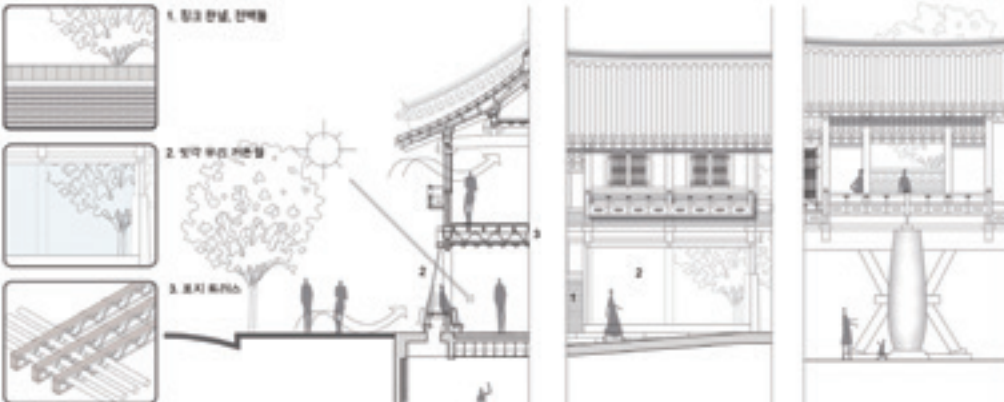


PERSPECTIVE 3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적인 환경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통적인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고, 현대적인 도시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고, 현대적인 도시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고, 현대적인 도시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고, 현대적인 도시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SITE DIAGRAM



DETAIL & FAC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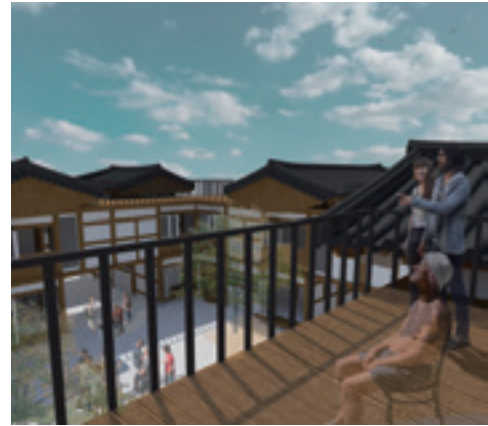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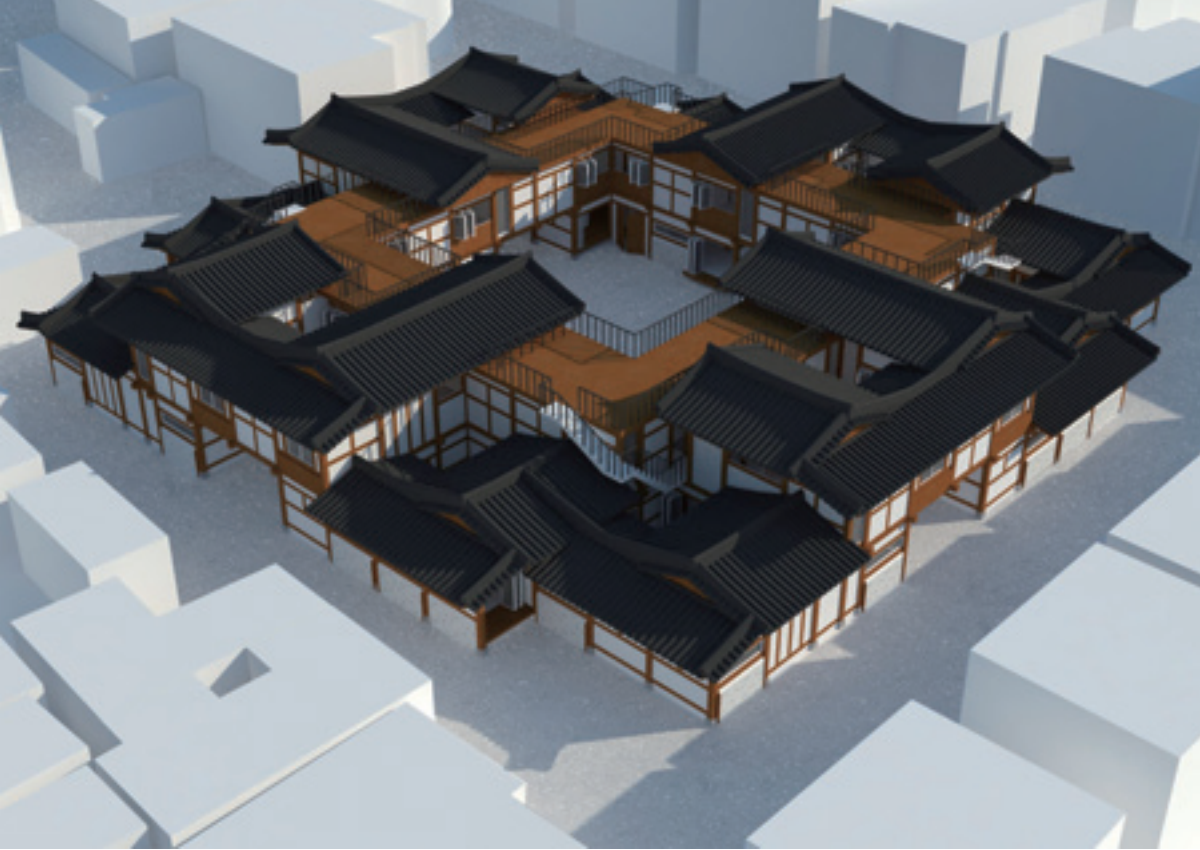


# 계획부문 특별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Sustainable ;  
Cityscape  
Hanok

명지대학교  
김효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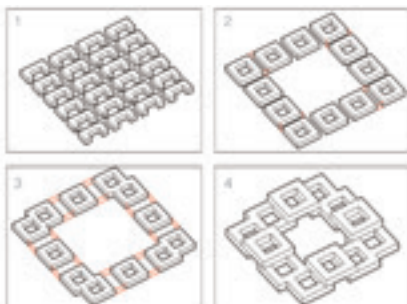
Site

서촌한옥마을로 불리는 통의동의 한옥은 개인주거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상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거공간의 마당은 길과 등지고 있고, 상업공간의 마당은 면적을 넓히기 위해 천장을 단아 놓았다.



Mass Process

기존 ㄷ자형 도시한옥을 ㄱ자 형태로 다시 8자형태로 결합하고 8자형을 1층에 ㄱ자형을 2층으로 한옥을 엮음으로 만들어지는 마당과 매스들에 다양한 성격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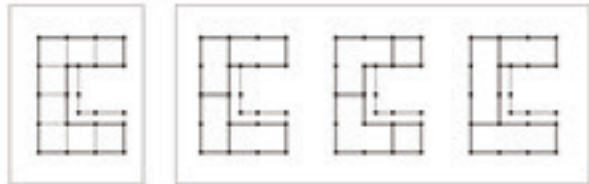


채, 마당

		
사랑채, 1층 거주민, 이웃주민이 사용가능한 근생시설 2층 거주민 공용공간	안채, 거주민들의 침실	2층 ㄱ자 한옥들을 연결해 모든 주거공간연결, 각각 남녀독욕탕으로 사용
		
공공마당,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사용	안마당, 개인방앗마당으로 소규모 커뮤니티 생성, 사랑마당, 거주민 공공마당	공공마당으로 들어오는 입구 2층 ㄱ자 한옥 밑으로 들어오며 통하면서 영역감 생성

칸

한옥의 한 칸을 3m x 3m 모듈로 만들어 거주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거주형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한다.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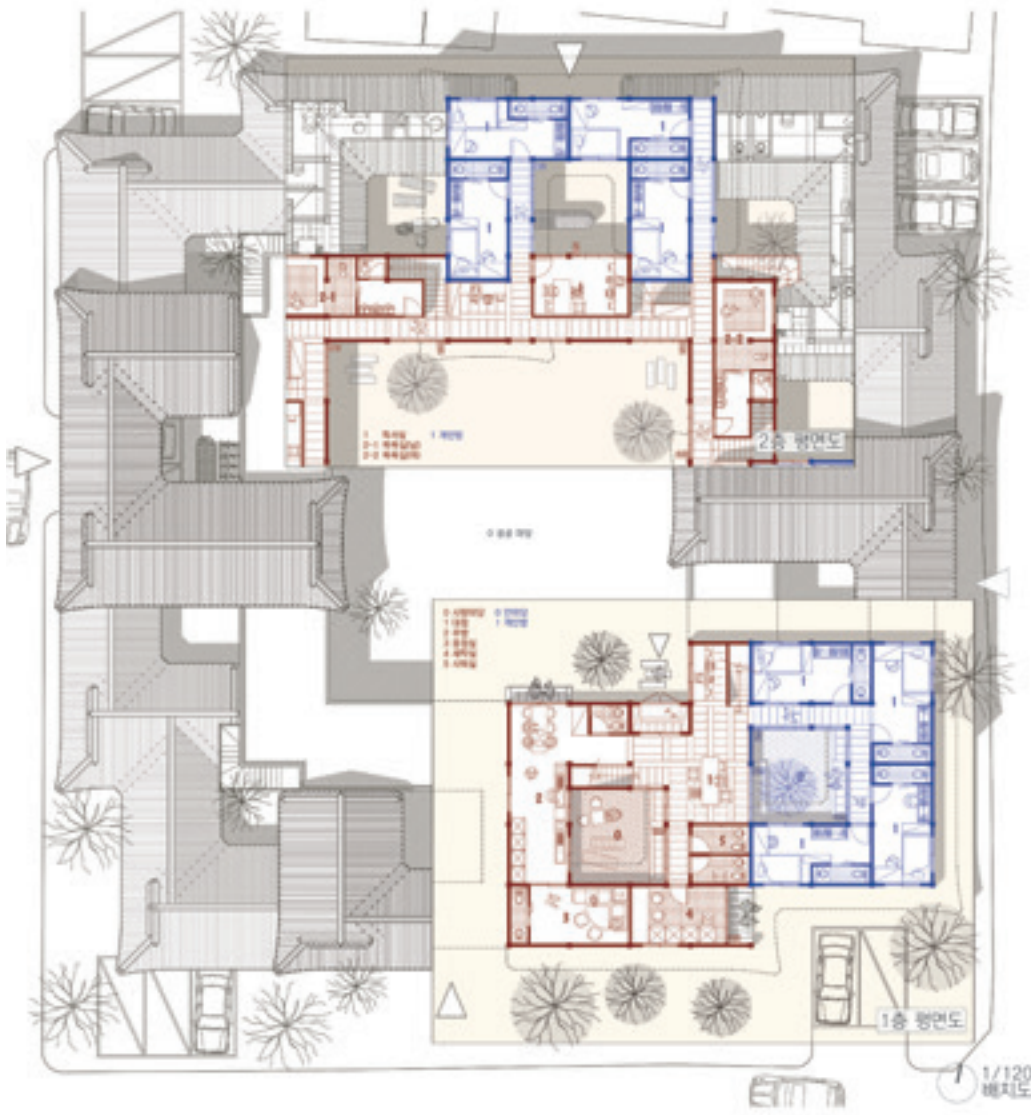
### 공동체를 위한 도시한옥 코하우징 주거계획

향촌한옥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마당으로 연결되는 채와 채의 유기적 관계였다. 도시한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협소한 대지에서 채와 채의 관계는 한 채의 집안으로 집약시켰다. 그 결과, 마당은 채가 아닌 방으로 둘러싸여 더 이상 다른 건물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고, 채와 채는 벽으로 막히게 되었다.

계획안에서의 부지 통의동(서촌) 역시 이러한 도시한옥과 궤를 같이 한다. 한옥들은 꽤나 통일된 형태로 존재하지만 한옥 사이 간에 연결고리는 없다. 그 한옥들의 비슷한 성격의 방을 모아 향촌한옥에서처럼 채들의 성격을 나누고 그 채들을 다시 현대적으로 엮어 공동체를 위한 코하우징을 통해 향촌한옥에서 느꼈던 마당과의 연계성 채들의 연계성을 다시 재현해 보고자 하였다.

계획안에서의 마당은 세 가지 층위를 갖는다. 개인 방으로 둘러싸여진 안마당, 거주민 공용공간으로 둘러싸여진 사랑마당, 여러 채로 둘러싸여진 공공마당. 특히 공공마당은 온전히 이웃주민들과 교류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계획된다.

### 배치도



## 계획부문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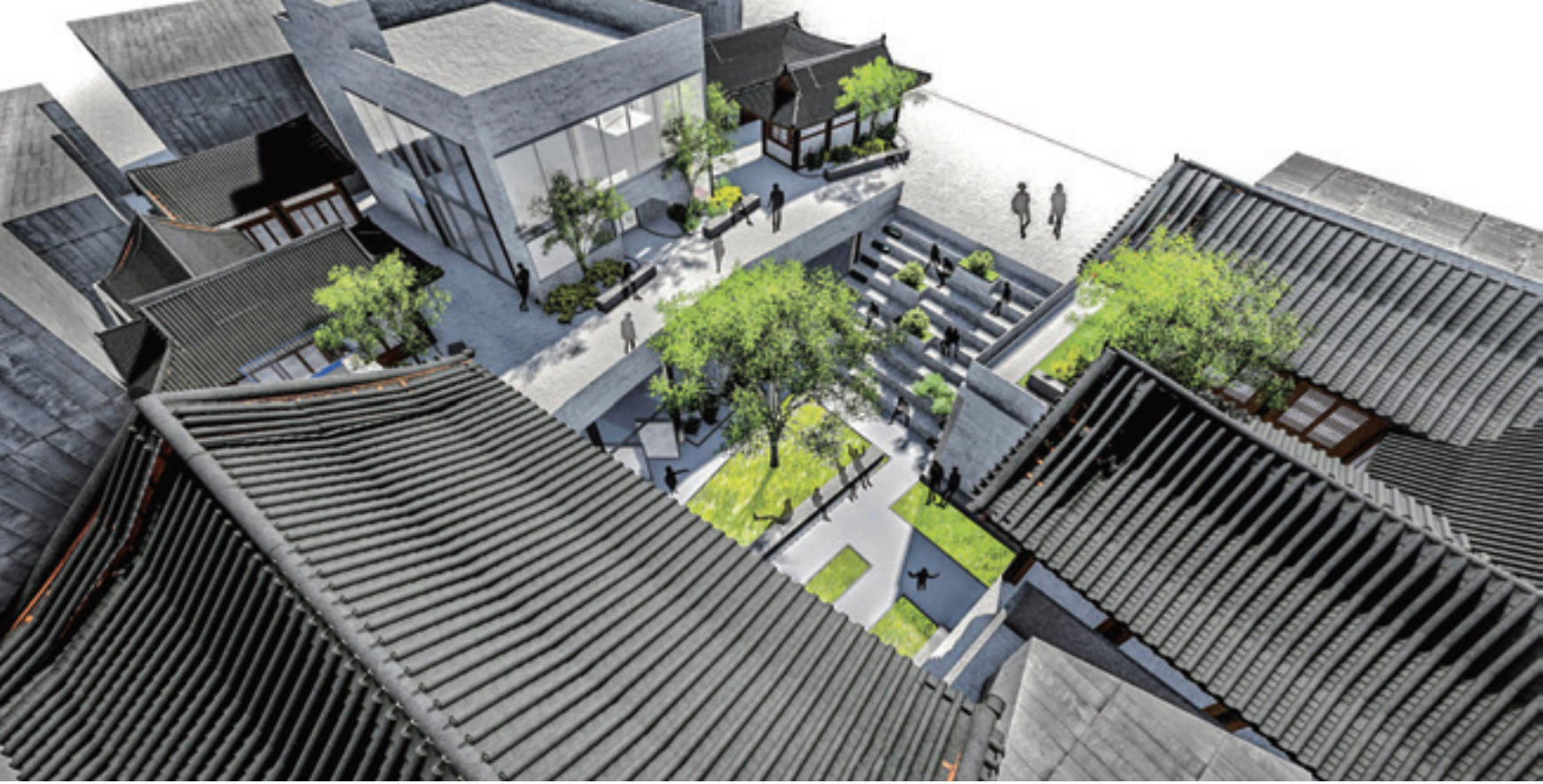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계획부문  
금상

한옥,  
채들의 관계 회복

한옥,  
채들의 관계 회복

명지대학교  
김영인



Main approach\_ Traditional Space Perspective

전시공간으로 들어가는 주 진입로의 동선을 지나면서 한옥의 파사드와 전체적인 공간을 감상할 수 있다.



Public Open Space

좁은 골목사이에 넓은 공지를 주면서 공지가 없는 SITE에 공공 공간을 만들어 숨통을 트이게 하였다.



Cultural Space

넓은 공지가 없는 SITE에 트인 공간이 생겨 복성의 다양한 세대의 유입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공간 생성



SITE Problem



계획된 Site인 복내동은 현재 일제강점기때 지어진 일제식 목조식 가옥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고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재물이 흐르면서 중심가가 북성로에서 동성로로 바뀌면서 시가지지체 현상증이 늘어나고 상권이 낮아지고 폐가도 많아졌다.

30% 70%

설계계획은 사이프내 몇개의 비어있는 콘크리트건물과 목조건물을 개축/리노베이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젊은 연령층의 유입과 그로인한 주변의 상권을 살리는 시가지 복구 프로젝트이다.

Existing PLAN

1. 공장  
공장이지는 허물고 유지용 확보  
이루스 카페 계획
2. 일반 가정집  
[이민상 생가 위치]  
1000년 조반 묘사당 안쪽으로 재현
3. 견로당  
기초의 기둥과 숲안쪽을 이용해 리노베이션  
이민상 일화연구소의 확장계획
4. 폐가 [목조건축물]  
기초의 목조기둥과 기둥을 이용한 리모델링  
이민상의 일화연구소 고서동 계획
5. 폐가 [목조건축물]  
기초의 목조기둥과 기둥을 이용한 리모델링  
전시장의 입구와 누각으로 계획

# 계획부문 은상



조선의 고경  
이인성 1912 - 1950

- 일제시기 한국 최고의 서양화가란 칭호를 얻음. 당시 청덕궁상 등 다수 작품 수상
- 한국의 풍토감을 살리기 위해 향토색을 작품 속에 구현하는 가하면 서양화 기법을 한국적으로 표현
- 해방이후 박상욱, 류경채등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줌

대구시는 예전부터 생가를 매입해 복원 등 이인성을 재조명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실현하지 못한 상태.

서성로 14길을 이인성로 개정안이 나와있다.



서성로 14길 **생가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1-16

## Design

서양화를 전공했던 이인성은 서양적 화풍의 그림에 향토적 색을 더해 자신만의 독특한 미술의 정체성을 만들어 냈다. 그 정체성을 건축적 디자인 요소로 해석, VOID공간의 썬큰은 전통적 공간과 현대의 공간을 연결 한다.



한옥의 기단은 동시에 현대적 전시공간이 되어 외부의 썬큰과 연결되게 된다. 썬큰공간은 외부의 상설전시공간과 연결되어 스윙도어를 통해 공간이 확장되거나 분절된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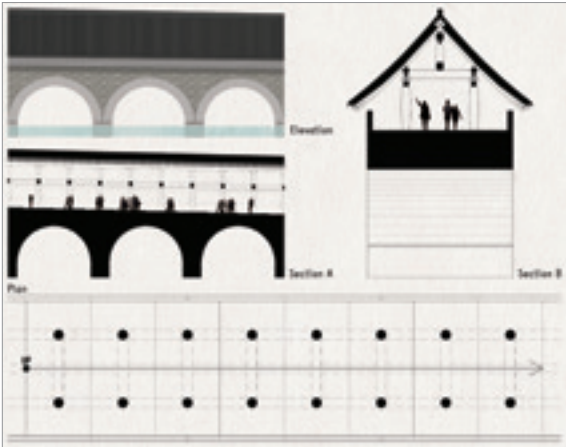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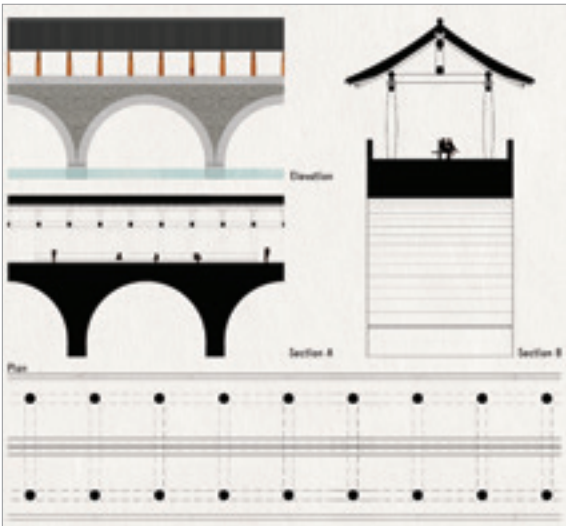
## 이인성 문화단지

계명대학교  
김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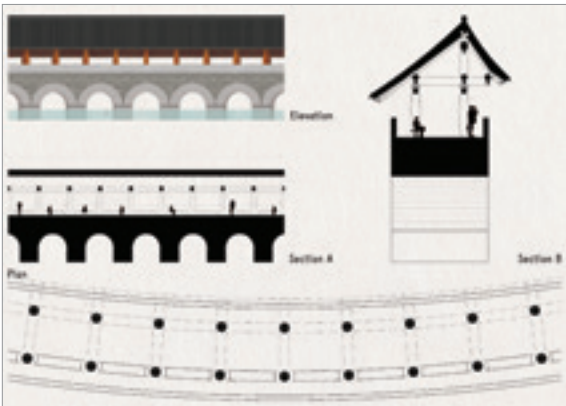
A

오르막 혹은 내리막 구간으로써 단순히 기능적으로 필요한 높이를 위한 뿐 아니라 도시를 등지고 혹은 방문했던 밤섬을 등지고 전혀 다른 성격의 도시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오롯이 오르고 내려가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지붕이 낮게 내려와 외부로의 시선이 차단되어 심신을 정리 할 수 있는 전이 공간이다.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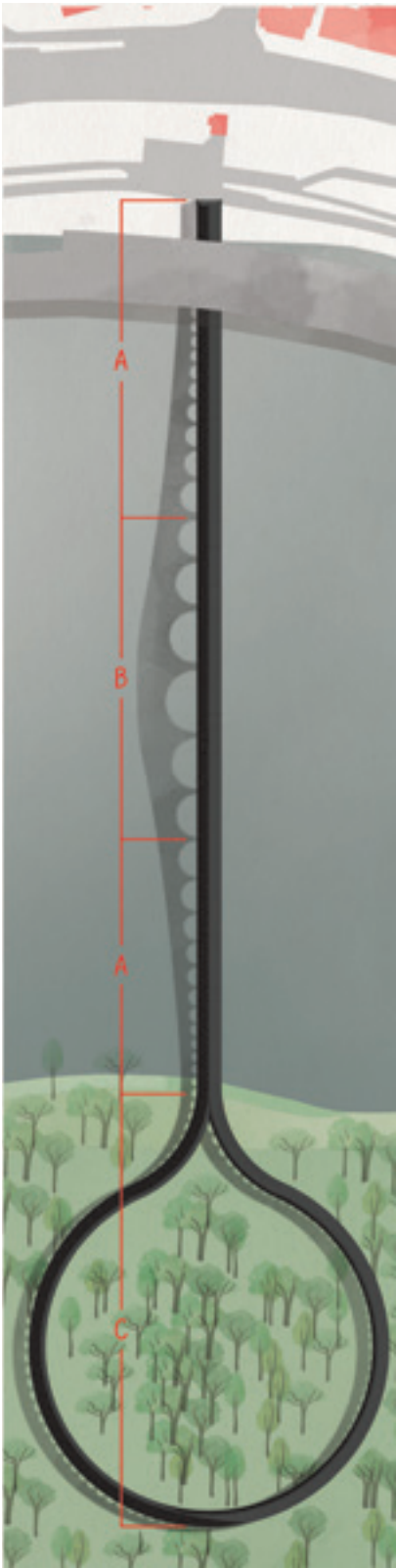
오르막의 끝에 평지를 이루는 관람의 공간으로써 도시를 돌아보거나 잠시 숨을 고르고 갈 수 있는 쉼의 공간, 도시와 자연을 동시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중앙에 위치한 의자와 높이 열린 지붕으로 인해 방문자들은 휴식과 관람 할 수 있다.



C

오르막의 끝에 평지를 이루는 관람의 공간으로써 도시를 돌아보거나 잠시 숨을 고르고 갈 수 있는 쉼의 공간, 도시와 자연을 동시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중앙에 위치한 의자와 높이 열린 지붕으로 인해 방문자들은 휴식과 관람 할 수 있다.





## 계획부문 은상

### 한강누교

한강의 현재 모습은 급진적으로 도시화되었던 6~80년대의 산업화 계획부터 현재까지의 결과로 사람중심의 도시공간과는 동떨어진 도시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넓은 자동차 도로를 지나야만 한강으로 닿을 수 있는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자연과 문화의 중심이 되었던 한강 자체를 지우는 개발계획의 결과였으며 이후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같이 첨단화라는 주제와 함께 등장한 인공 섬과 공원 정비 사업으로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도시 계획적 아픔이었다.

특히나 밤섬은 이러한 서울의 근대화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섬으로써 밤섬은 거주민이 살던 한강 안 작은 섬이었다. 서울의 급진적 산업화 계획에 따라 1968년에 필요한 석재를 얻기 위해 가차 없이 폭파되었던 섬이기에 그 자체가 서울의 근대화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이후 민간인 출입 제한 지역이 되었고 덕분에 밤섬은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될 수 있는 좋은 습지가 되었다.

한강누교는 누교라는 전통적 다리형식을 빌려 밤섬과 한강북단을 연결하는 인도교이다. 누교는 다리 위에 누각이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주로 산속 사찰에 진입할 때 하천을 건너기 위해 지어졌던 한옥이다. 불교의 세계에서 이상세계와 현실을 경계짓는 하천이라는 자연 지형을 인공의 누교를 통해 서로 연결시켜주는 구조물이다. 단순한 물리적 통로인 다리와 물을 건너며 세속의 마음을 씻고 정신을 수양할 수 있는 누각이 독특한 다리이다.

일반인에게 접근이 제한된 밤섬이기에 섬에 직접 연결된 다리보다는 누교 형식으로 섬 근처를 돌아 나올 수 있는 계획이 올바르다. 누교 자체가 밤섬의 관광의 목적보다는 걷기에 꽤 긴 다리를 돌아 나오으로써 도시의 구조물에서 벗어나 자연을 보며 마음을 씻고 정신을 다듬을 수 있는 목적이어야 한다. 즉 한강누교는 도시와 밤섬의 관계를 통해 도시와 개인, 자연과 자아를 성찰함과 동시에 한강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성을 잃어버린 한강에 전통적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 한강누교

### 프리랜서 장서경



### Prologue . 도시 속 한옥은...

일제 강점기에 도시 속 한옥은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를 형성하면서 일정한 중심의 주거지역은 차별화된 도시주거지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도시지역에 형성되는 새로운 주거지는 토지구획정리가 격자형으로 가로망과 골짜기 구조로 바뀌어 건축되는 한옥은 자연스럽게 조성된 대지에 건축되는 한옥에 비교하여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 속에서 한옥에 있어서 '도시 속 한옥'은 여러 문제를 겪고 변화해 왔다. 부질없는 것이 아닌 그 시대의 형식, 상황에 맞추어 사람들이기에 있었고 그러한 변화는 그 시대를 보여주고 내리는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정체성'과 '생명력'에 대한 대립적 가치는 중심을 못 잡고 서로 줄타기를 하고 있다.

### Question . 도시 속 한옥에 대한 고민



한양역을 강조하다보면 상당 부분에 대한 변형을 허용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정체성을 영속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형을 허용할 수 없고, 그 결과 마치 '도시 속 한옥'은 허용할 있게 되어 생명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까?

### Attitude . 전통에 대한 우리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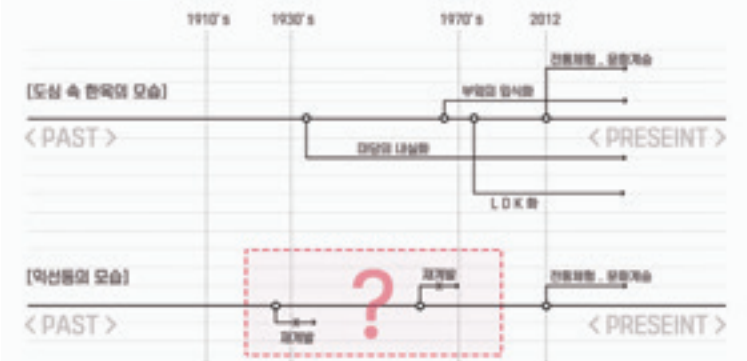
한옥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과 양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립적 가치: 조선시대 선비들의 사상이 바뀌어 되어 지어진 전통한옥이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는데도 살아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전통한옥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재현하는 방법이 아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조명되고 소생시키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 Site . 익선동 한옥마을 위치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때묻지 않고 전해오지만 점점 퇴화해가는 익선동 한옥마을. 익선동 한옥마을은 1910년부터 도시형 한옥의 초창기의 형태를 간직한 채 계속 전하는 서울 속 역사와 산 주산지. 한옥마을은 5개의 역사전망과 6개의 일제강점기를 통해 계속되었는데 2번의 재개발 실패로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고 한옥마을은 주인들이 잠깐 떠나 그 자리에 가만히 서있어 돌아서고 있다.



### Time process . 도시형 한옥의 변신과 현재 익선동의 모습



보편적인 한옥의 모습은 과거 'ㄱ'자형과 'ㄴ'자형이 합쳐진 'ㄷ'자형에서 대문과 내실과, 부엌과 입실, LDK와, 전통채반, 문지방을 통해서 현재 한옥의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 하지만 '익선동' 한옥의 모습은 2번의 재개발 실패로 때묻지 않은 1910's 모습,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Problem . 익선동 한옥마을, 현재 사람들의 반응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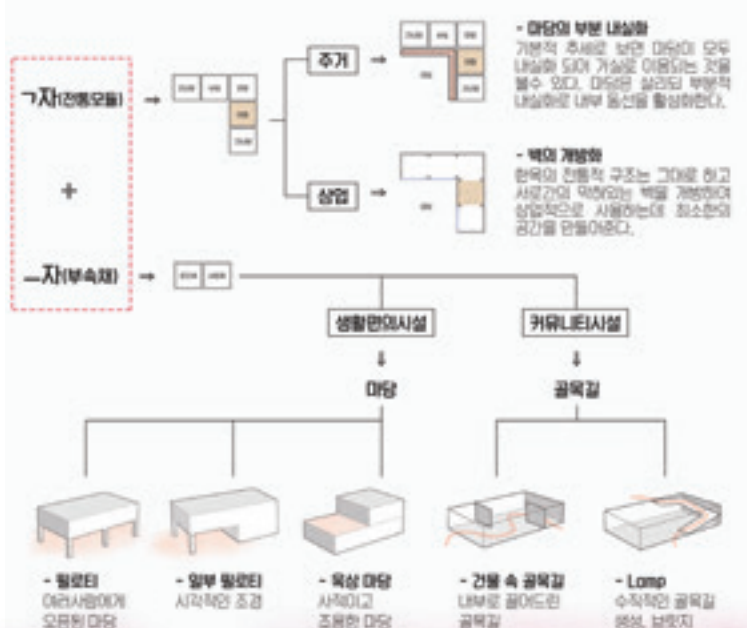


### Concept . 새로운 도시 속 한옥 제시



01 + 02 + 03. NEW 도시 속 한옥  
변태한 도시 속 한옥을 현대 시대에 반영한 새로운 모듈을 제시하고 소풍이 부각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당과 골목길을 삽입시켜 하나의 공동체 한옥 마을로 만들어 나간다.

### Concept diagram . new 모듈 반영 방법



### Section view . 1/100(A-A')



익선동NEW한옥마을

현대에 있어서 '도심 속 한옥'은 여러 문제를 끼고 변화해 왔다. 부질없는 것이 아닌 그 시대의 현실, 환경에 맞추어 사람들에게 입혀졌고 그러한 변화는 그 시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정체성'과 '생명력'에 대한 중립적 가치는 중심을 못 잡고 서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전통한옥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재현해내는 방법이 아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조명되고 소생시키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때문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익선동에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도심 속 한옥을 제시하려고 한다.

문제점으로 관광객이 오게 되면서 주민들끼리 소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잃게 된 현실 그리고 전통 한옥이 이어져 있지만 너무 넓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3가지의 새로운 도심 속 한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공동체 마을 만들기'로 도시형 한옥은 땅과 주택이 동시에 지어진다는 개념에서 일종에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집합주택이나 과거의 마을의 개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한옥이 모여 하나의 마을을 재생시키려고 한다. 두 번째 '전통적 기본 모듈 + 현 시대 반영 = NEW모듈'로 도시 한옥의 구성 체계에서 전통모듈 c자형은 ㄱ자형과 ㄴ자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ㄱ자 형태를 전통적 기본 모듈로 남기고 ㄴ자 형태를 현시대에 반영하려고 한다. 세 번째 '마당+골목길'로 현재 도심 속 한옥을 보면 소통의 주된 요소는 문화적 요소이다. 때문에 전통적 소통의 요소인 '마당'과 '골목길'을 삽입시켜 도심 속 소통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이러한 3가지 도심 속 한옥의 요소를 통해서 변해버린 도심 속 한옥을 현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모듈을 배치하고 소통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마당과 골목길을 삽입시켜 하나의 공동체 한옥 마을로 나아가려 한다.



계획부문  
동상

익선동  
NEW한옥마을

공주대학교  
정근웅  
이영선

### 1. 개발 시대 이후의 개발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이미 97%를 넘어섰고, 인구증가를 막기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있어왔던 도시도시에 대한 필요 요구 또한 서그라들게 되었는바, 이로인해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개발 역시 그 수가 급격히 감소 하였다. 대신지를 포함한 여러 구역의 정비사업들이 현재 보편을 이거나 취소되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의 필요도와 도시공간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연구주택화를 반영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 점진적 개발



기존에 있던 오래된 도시정형계획을 점진적으로 개발하며, 요구에 따라 1인-4인용 주거로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 2. 자율적 개별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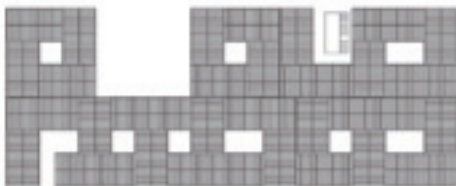
법정을 통한 대규모개발이 아닌, 개별단지 상황(크기에 맞는 몇가지 시스템을 통하여 개별단지를 유지하면서 자율적인 개별단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이때 충분한 개별개발을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발 지원금액 따른 개발여건준 등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방식은 개발이 시작되면 한쪽면만 모든 주간의 통제를 하나 다른 곳으로 이루어진다. 공사가 끝나고 다시 한쪽면 들어오는 과거의 개발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인 개발의지로 공사시기를 결정하며,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바꾸는 개발이다. 이로인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임대료와 같은 일시적 개발의 단점들도 극복할수 있을 것이다.

### 3. 도시공간구조의 연속성 (1인용 도시한옥)

같은 도시적 차원에서 건축보다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어야 도시적인 요소이다. 건축은 즉시대에 맞춰서 반영하면서 지었다 후유는 지는 것을 반복하지만 결과 건축이 한다는 방식의 건축의 특징과 같은 도시공간구조는 오랜 시간동안 사용과 생활이 한다는 방식, 사람과 주민이 한다는 방식을 만들어 내었다. 이 시대에 접어들어 도시한옥이 거지는 의미는 개발건축이 거지는 의미보다도 이러한 공공공간과 건축이 한다는 방식에 있으며, 새로 들어오게될 건축이 기존에 있어왔던 도시한옥의 이러한 방식과 조화할수 있도록 한다.



지붕평면도 (기본)



지붕평면도 (개화한)

기존에 있었던 도시한옥 특징이 유지되 과거 높이, 공간분할시성과 주거의 거주용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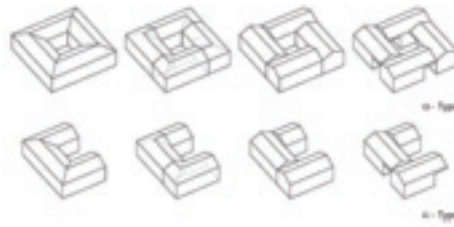
### 6. 변형 가능한 한옥

그릴 수 있는 외부 벽체 슬라이딩 도어와 간단한 단층공사만으로 L, U, Z자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거주구성원의 변화로 인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며, 대지경계선을 넘어선 여러가지 조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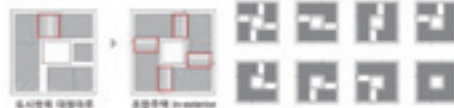


### 4. 조합이 가능한 한옥

조합주택은 한 단지에 3-4개 정도의 조합이 가능한 1인용 주거 유닛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는 개발로 책정이 가능하기도 하며, 개별단지로 가능하도록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거주자의 거주구성원 변화나 요구에 따른 추가 책정과 책정이 가능하도록 조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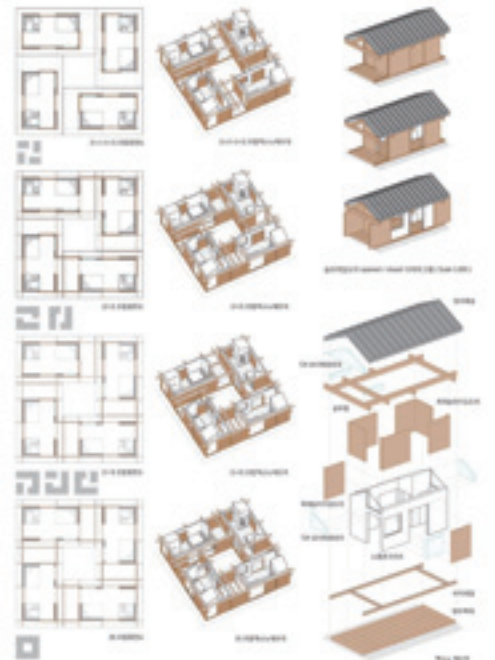


3-4인용 위한 기존 도시형 건축주택의 크기와 스케일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서 시작하며, 독립적인 공사와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분리한다. 유닛 간에는 1인용화된 최소크기의 대문만과 세면실을 제공하며, 샤워와 세탁, 주방같은 시설들은 공용으로 사용하며, 일차원의 경계를 두어 배치하지 않는다.



일 유닛과 조합이 위한 내부로 사용되는 이 공간은 1인용 위한 유닛을 상황에서는 과거 건축의 대문만 벽을 제거 되어 도시와 연속을 맞춘다. 여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사이공간 사이에서 의문과 미션이 언제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차원에서 1+1+1 / 2+2 / 2+3 / 4 조합이 가능하며 몇 가지의 연계되어 조합도 가능하다



### 5. 모듈화 & 커뮤니티

기존 도시형 한옥의 일정한 크기로 배치되었듯이, 새로 만들어 낼 1인용 한옥도 몇가지 정해진 사이즈로 만들어서 배치한다.

오른 주거에는 최소한의 화장실만 배치하여 공간활용을 극대화 하고 중간공간에 공용으로 쓰는 샤워실과 주방 등을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주민 커뮤니티가 발생하도록 유도한다. <자> 크기로 제작되었지만 한옥의 1인용 한옥으로 배치면서 오픈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서도 3-4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용도를 공유한다.



기타 조합형 (4x4 / 5x4 / 6x4 조합형)





## 조합주택

현재 많은 도시개발이 중단 혹은 보류중인 상황에 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의 도시개발이라 함은, 기존의 도시구조를 밀어버리고 용적률을 높여 높은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93%를 넘은 이 시점에서 1950년대 대규모로 지어진 도심형한옥부지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발방식을 제안한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기준들은

1.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한다. (도심형 한옥의 구조)
2. 기존 것과 새것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한다. (재료의 선택)
3. 변화된 인구구조를 반영한다. (1-2인 가구의 증가)
4. 변화될 가족구성원에 따른 집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조합 가능한 주택)
5. 샤워 실이나 주방을 중간 중간 배치하여 마을단위 안에서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4인을 위한 도심형 한옥주택 자리에 1-2인(혹은 그 이상)을 위한 새로운 조합주택을 제안한다. 기존 한옥 크기와 중정의 크기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모든 크기를 결정하고 1-2인이 사용 가능한 개별방의 조합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로 인해 가족구성원이 변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길 기대한다.



# 계획부문 동상

## 조합주택

조병수건축연구소  
이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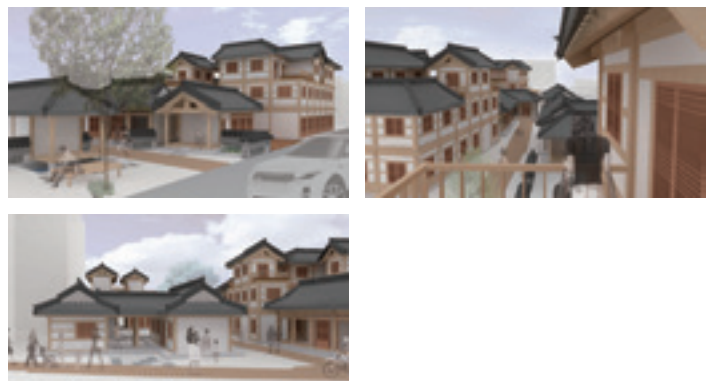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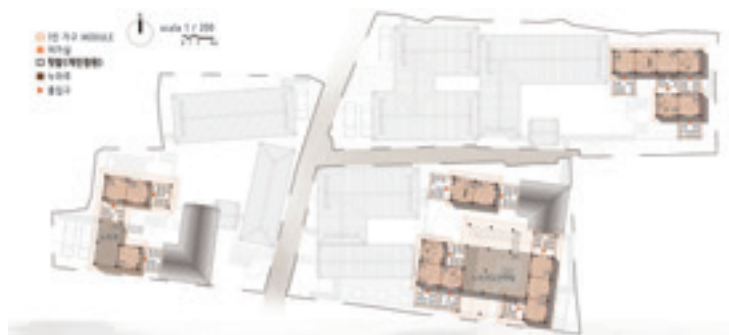
배치도 &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진골목에서 시작하는 우리 이야기

한옥이 도심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열된 부동산 시세, 획일적인 아파트 평면, 높은 한옥 시공비와 같은 다양한 장애물들을 넘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생활양식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대응하여 발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옥은 단기 체험시설이나 부유층들의 전유물 등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주거 및 생활 양식변화를 살펴보면, 1인 주거와 이주성을 선호하는 문화가 나타난다. 이미 우리나라의 1인 주거의 가파른 증가세는 여러 항목의 통계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며 외부자극을 즐기는 호모노마드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사생활과 여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당장이라도 배낭을 메고 해외로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는 세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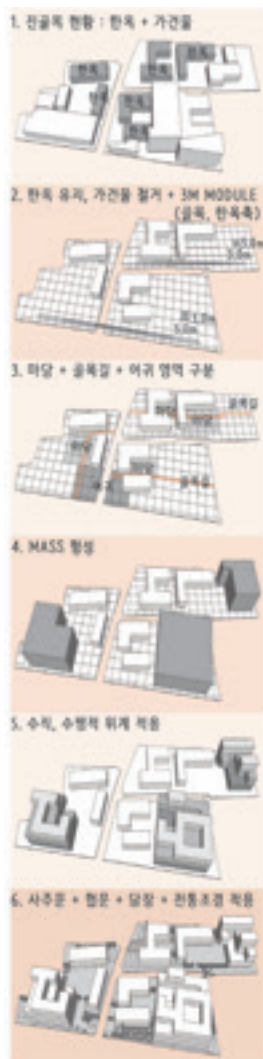
이들을 위해 우리는 도심지 한 가운데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진골목에 도심지가 가진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1인 주거와 게스트하우스를 한옥으로 계획 해보았다.

도심의 가로변 파사드를 고려하여 큰길 접하는 부분에 3층 규모의 건축물을 배치하였다. 1층에는 상업 시설로 도심의 상업기능을 부여하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마당을 배치하고, 각 마당을 연결하는 동선을 따라 퍼포먼스의 기능(전시, 판매, 공연 등)을 주조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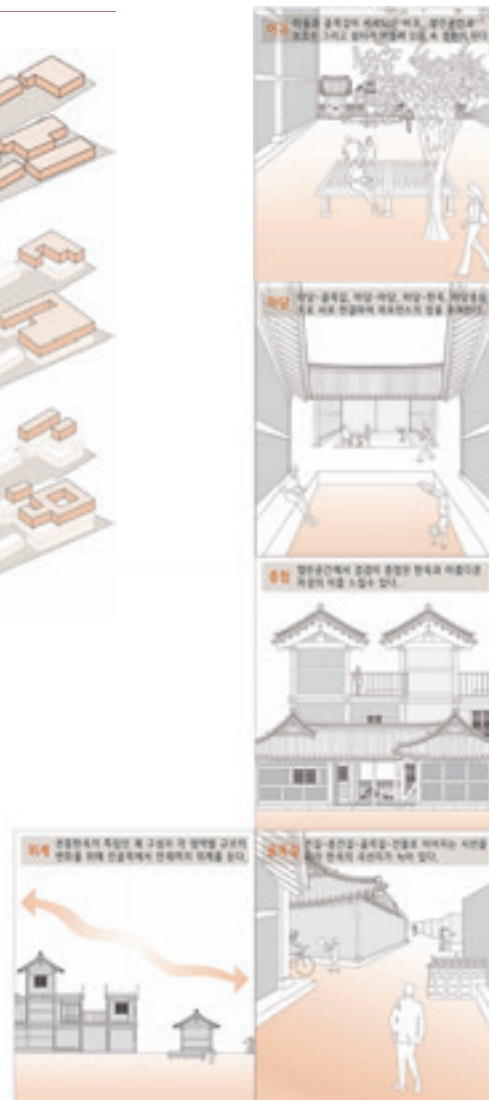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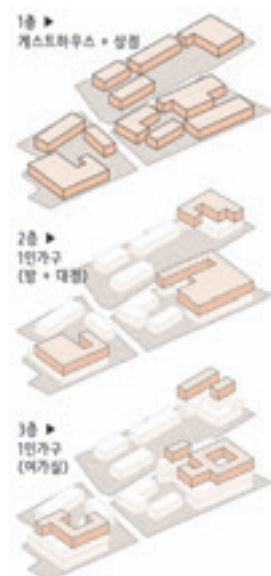
그리고 진골목에 전체적인 한옥의 미를 부여하고자 마을 어귀, 마당의 열린 공간을 제시하였고, 여러 한옥 사이로 보이는 중첩의 미, 서로간의 높낮이를 달리하여 위계를 적용하였다. 또한 좁은 진골목에서 건물로 인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골목변에는 단층으로 구성하고 멀어질수록 높게 계획하여 보다 트인 공간으로 구성하여 골목길에서도 충분히 한옥의 아름다운 지붕선형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3층 규모의 한옥건물 내 사이사이 비어있는 공간(중정)을 부여하여 2층, 3층의 단층에서도 한옥의 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배치 프로세스



매스 형상



계획부문  
동상

진골목에서  
시작하는 우리  
이야기

동우 E&C  
천진호  
차유나



평면도



입면 및 단면도



# 계획부문 입선

## 연남별곡

### 시대와 함께 변화한 한옥

과거 한옥의 이미지는 '주거'로서의 인식이 강해 주택문제의 해결안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 요구되는 주거공간과 한옥의 이미지는 점차 변했고, 특유의 여유로움은 계속 사랑받아 한옥이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곳은 주거와 달리 찾아가야한다. 한옥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을까?

### 변화한 한옥과의 동행

이러한 질문에 도심 속 한옥 파빌리온을 고민한다. 파빌리온은 도시의 결핍을 채워준다. 예술이 낯설게 하기를 통해 현실을 환기하듯이, 파빌리온은 도심 속 일상생활을 환기시켜 다양한 활동을 끌어내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 여기에 한옥의 분위기를 더하면 한옥은 더 이상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쉼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끌어내는 파빌리온의 계획을 위한 분석으로 한옥을 해체하고 재발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 경의선 숲 길

대상지는 경성 순환 열차가 지나던 곳이었지만 현재 경의선 숲길로 불리는 도심 속 쉼터가 됐다. 하지만 약 800m의 길이와 면하는 도시의 다양성 때문에 조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이를 한옥 파빌리온이 가지는 특성으로 해결하려 한다.

### 첫번째 장소- 너와 나와, 기와



홍대입구역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했으며 대지의 단차를 이용한 길거리 공연이 이루어진다. 이를 고려한 휴식+문화공간으로 한옥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인 기와지붕을 눈앞에 마주하게 하여 인식의 환기를 이룬다.

### 두번째 장소- 처음으로 만난 처마



경의선 옛 철길이 수공간과 함께 보존되어 있으며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지붕을 끌어내리고 추녀를 강조한다. 이곳에 앉아 쉴 수 있도록 개판을 두어 지붕을 체험할 수 있는 한옥 파빌리온을 계획한다.

### 세번째 장소- 품안의 지붕



주거지와 면하고 대지의 중심에 위치하며 넓은 잔디가 형성되어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만 근린시설이 부족한 공간이다. 여기에 한옥의 입면성을 입체적으로 재해석해 창틀, 기둥 그리고 서까래 사이로 다양한 창경을 가진 카페와 공중화장실을 제공한다.

### 네번째 장소- 서까래 트윈스트



철도의 본래 모습이 온전히 보존된 곳이며 가족단위로 많이 찾지만 쉴 곳이 없다. 공원에 그늘을 제공하는 세 칸 규모의 한옥 파빌리온과 서까래를 이용한 데크를 배치해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 다섯번째 장소- 맞배 더하기 팔작



대지의 끝에 위치하며 주거지와 인접해 주변 거주민들이 많이 찾는다. 숲길의 물길이 시작하는 부분으로, 매우 한적한 느낌을 준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공간을 가진 중정들을 형성하고 누정을 활용한 개방형 파빌리온을 계획했다. 또한 대지의 축에 맞춰 계획된 팔작지붕의 누정은 주변보다 높은 레벨로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 연남별곡

충남대학교  
원종민  
이주호  
곽정은  
이승표



### 한옥다발 : 현대화로 엮은 한옥의 가치

컨셉(한옥다발) : 꽃은 한 송이로 존재할 때 보다, 그 꽃들을 묶었을 때 더한 의미가 있듯이, 떨어져 있는 한옥을 하나로 엮으면서, 도심형 한옥에서의 가치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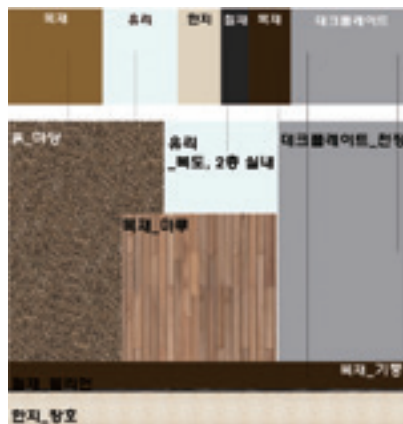
- 프로그램(노인복지시설) : 그 지역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건축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수용한다. 한옥은 단절된 건축양식이 아니라, 현대 프로그램의 다양한 패턴을 수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외관의 의장적인 측면보다는 구조와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한옥 다발 : 현대화로 엮은 한옥의 가치’는 도심에서 사용되는 노인복지시설은 기존의 한옥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도심에 맞게 변형될 것인가를 말해준다.

- 설계 전략(장면에 의한 설계) : 콘크리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매스에 의한 설계는 한옥에서 맞지 않다. 장면에 의한 설계를 통해 건축물내의 장면을, 더 나아가 도시의 장면을 보여주는 건축적 산책로를 구현해 낸다.

- 오늘날 도심에서 새롭게 해석될 한옥의 건축언어

1. 건축물의 일체성(마당) : 기존의 한옥은 마당을 두고 각각의 여러 채가 배열되어 존재한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에서 각각의 여러 채는 노인들에게 이동의 걸림돌이다. 떨어져 있는 건축물을 하나로 엮음으로 노인 보행의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그저 외형적 엮음이 아닌, 시각적인 건축물의 일체성을 위해 틈마루의 시선 끝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배치하였다.
2. 실용적 한옥(서까래) : 실제로 리노베이션의 대상인 건축물의 거주인은 지붕기와의 관리를 경제적 · 지속적 관점에서 불가능하여, 천막으로 덮어 놓았다. 구조의 역할을 하지 않는 서까래를 제거하여, 오늘날 도심에 맞는 한옥 지붕으로 변형한다.
3. 전통 담장의 재해석(담장) : 또한 담장은 더 이상 대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벽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건축물 내부에 도입되어 공간을 나누는 전통 담장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4. 수직적 반(반)외부공간(지붕) : 오늘날 도심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합적인 공간이 요구된다. 기존의 한옥에서 외부와 내부공간을 구획하는 방법은 수평적 확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복합적인 공간은 도시의 밀도에 맞게 수직적으로 변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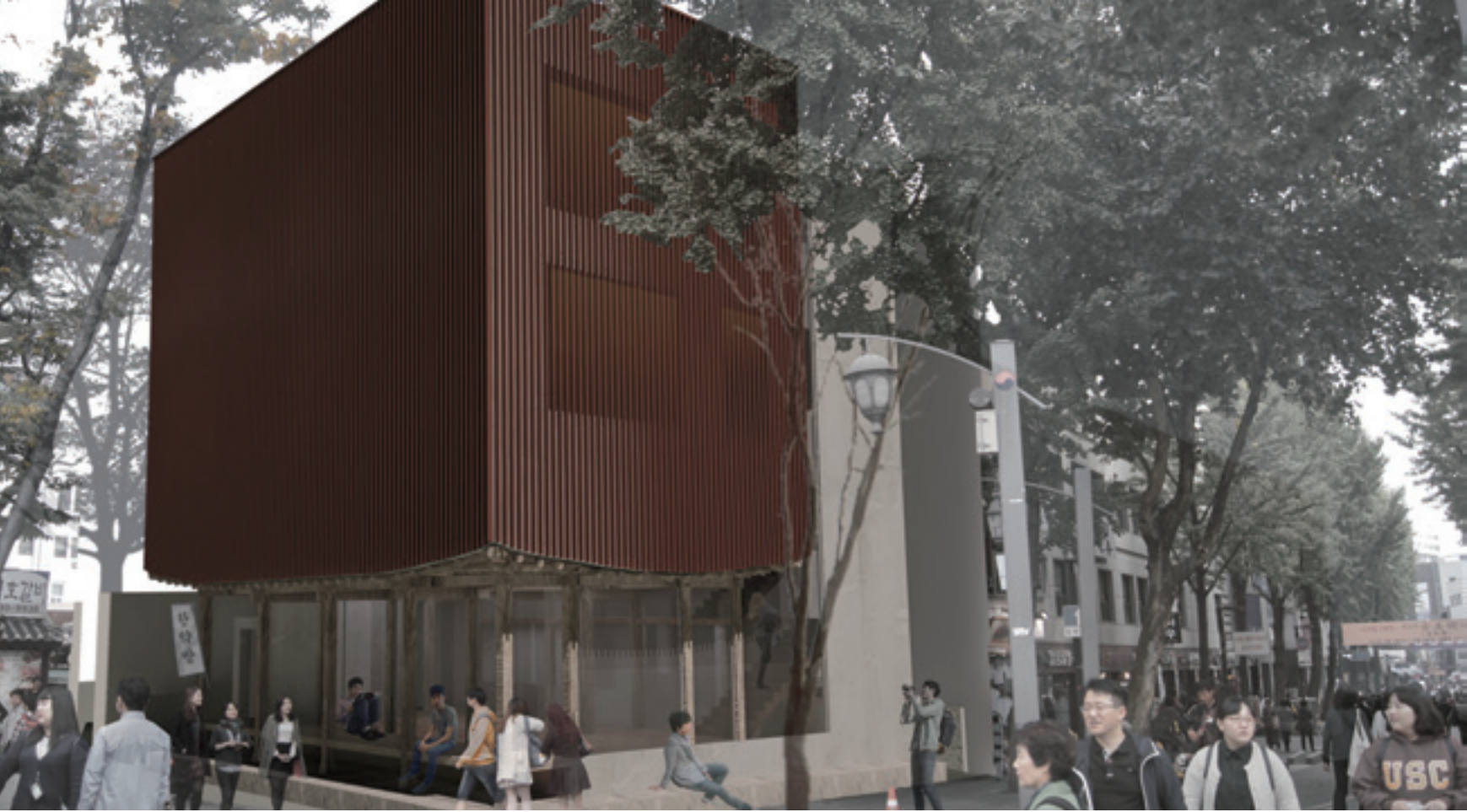
### 실내 색채, 재료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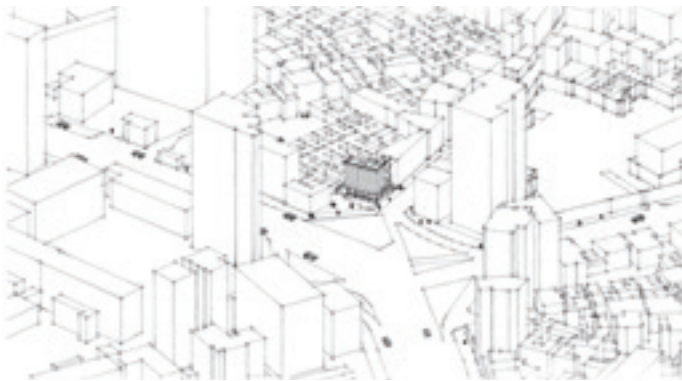
## 계획부문 입선

### 한옥다발 : 현대화로 엮은 한옥의 가치

영남대학교  
노근성  
김종빈



SITE PLAN



PLAN





도심속 한옥

현대에서 한옥은 살기 불편한 곳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한옥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많은 사람들이 한옥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한옥을 현대에 맞춰 활용을 할 때 보통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해 생각을 한다. 그 중 보통 리모델링은 한옥 내부에 대한 현대화나 한옥에 현대 건축물을 옆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서울에 존재하는 도심 속의 한옥은 거의 대부분이 대지의 한계로 인해 확장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한옥과 현대건축의 조합에서 한옥에 현대건축이 옆으로 붙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옥을 베이스로 현대건축을 위로 올리는 방향을 생각하게 되었다.

공간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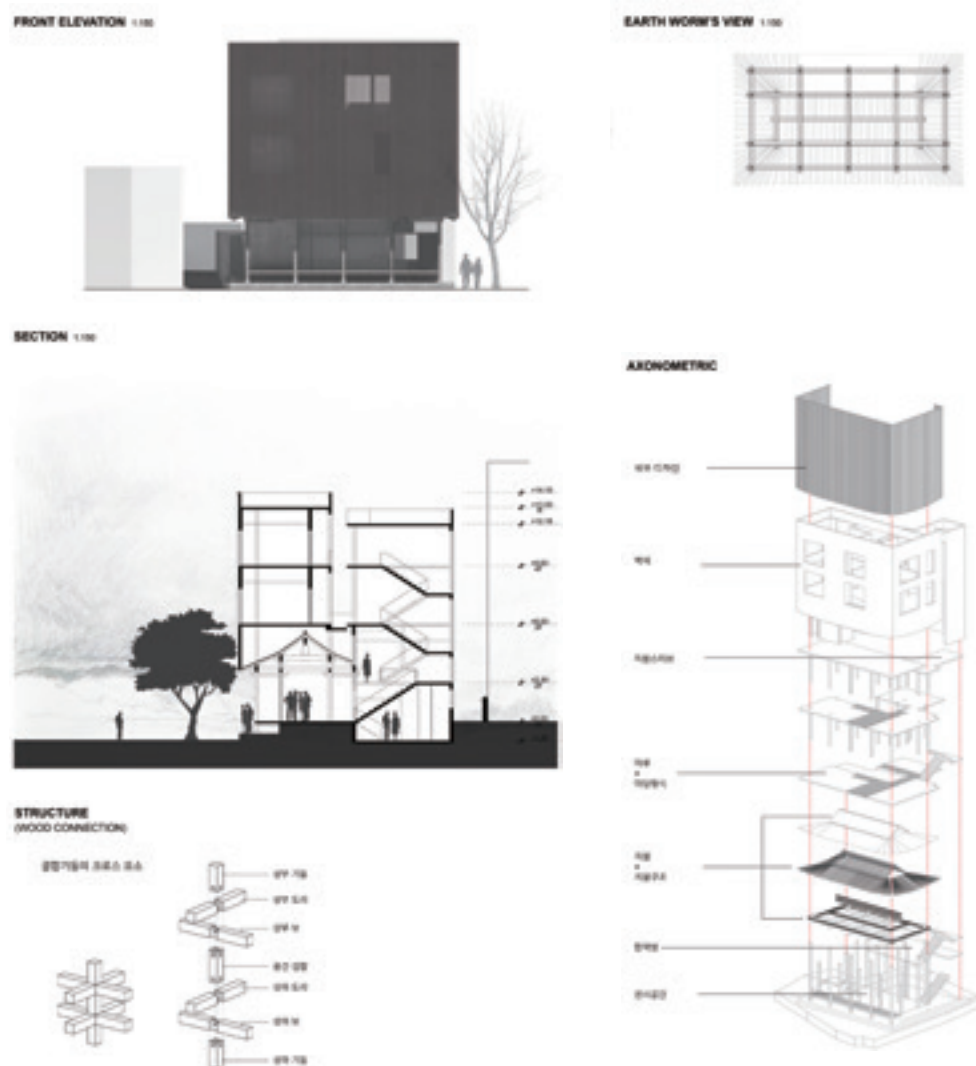
인사동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전통을 외부인들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전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한약과 관련된 곳은 없다. 이를 위해 한옥과 한약을 함께 알릴 수 있는 Medicinema을 계획하게 되었다. Medicinema은 Medicine(약)과 Cinema(전시)를 합친 단어이다.

이 Medicinema은 외부인들에게 한국 전통 한약을 소개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한약 구매할 수도 있는 곳이다.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외부인에게 한약을 홍보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전시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데 외부인들이 이 공간을 통한 한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전시위주의 공간이다.

두 번째는 약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첫 번째 공간에서 한약에 대해 관심을 가진 외부인들이 한약을 구매 및 처방을 받기 위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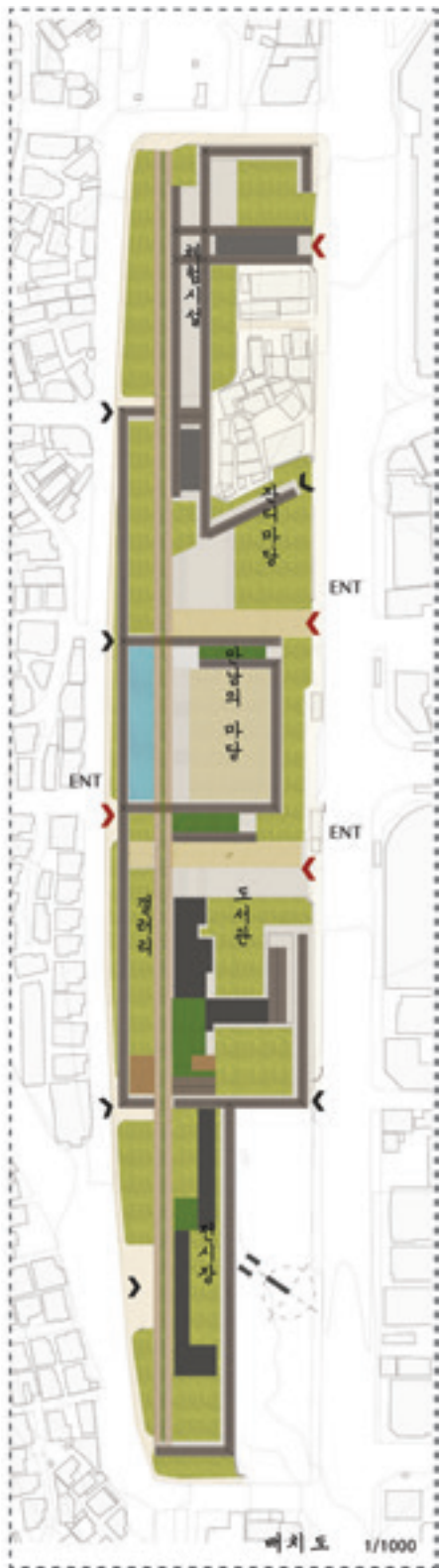
세 번째는 한약을 제조, 판매하는 직원을 위한 공간이다. 이 공간은 직원들이 한약을 제조하고 한약의 관리를 위한 공간이며, 첫 번째와 두 번째공간과도 연계된다.



# 계획부문 입선

## MEDICINE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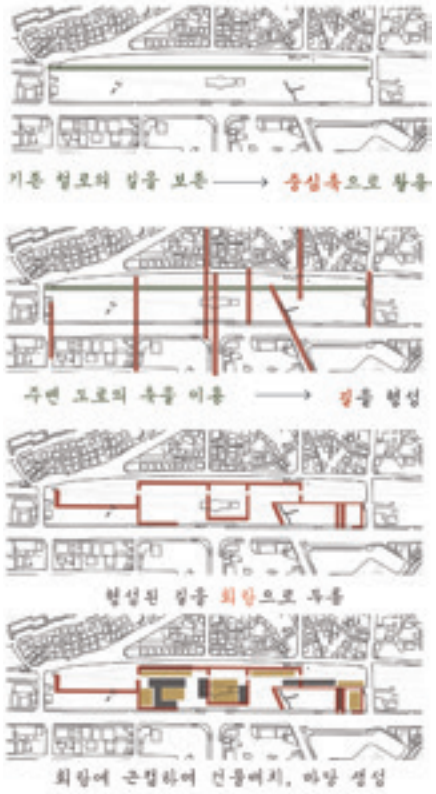
배재대학교 졸업생  
다라  
조형진  
최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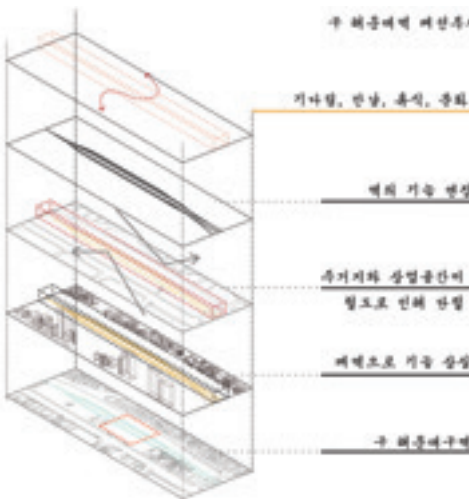
도심 속 한옥



매스 프로세스



대지 분석



체험시설



만남의 마당



도서관



## 공공(空共)

공간을 비움으로써 거기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고 이를 함께 채워나가는 것이다.

한옥의 미는 여유에 온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여유를 찾아 볼수가 없다.

도시에 공간을 비움으로써 바쁜 삶속에 여유를 찾을수있는 설계를 제안한다.

한옥에서 여유는 공간을 비움으로써 진정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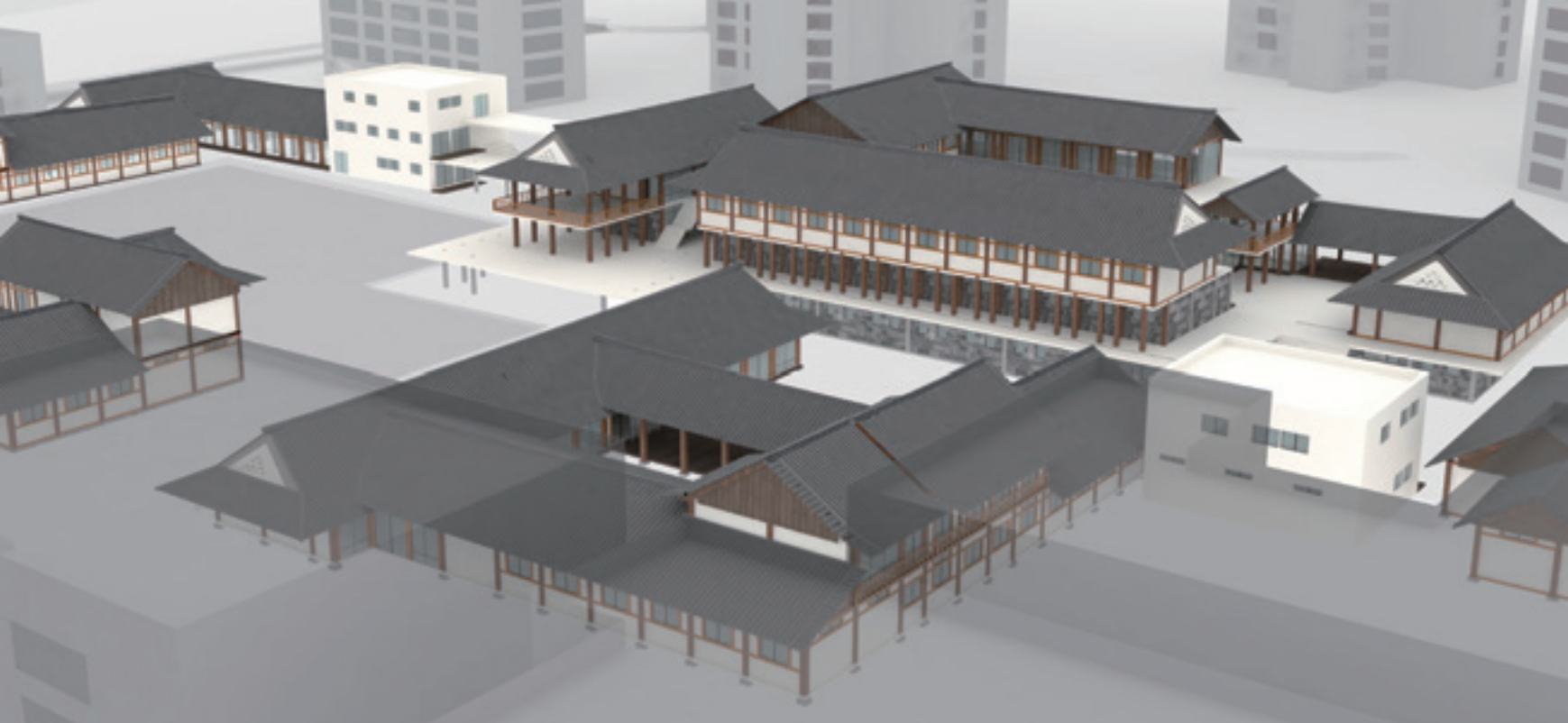
이처럼 비워진 공간 속에서 함께 여유를 느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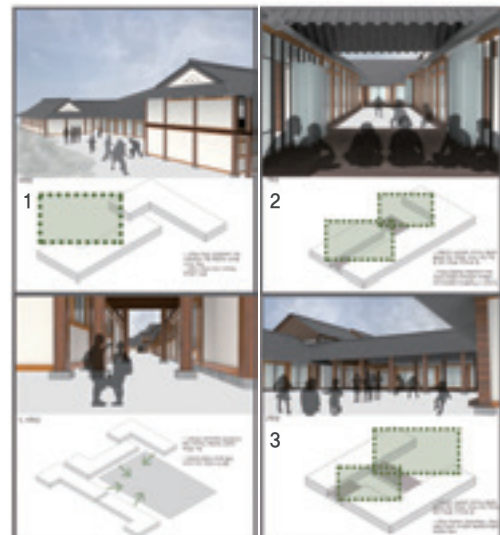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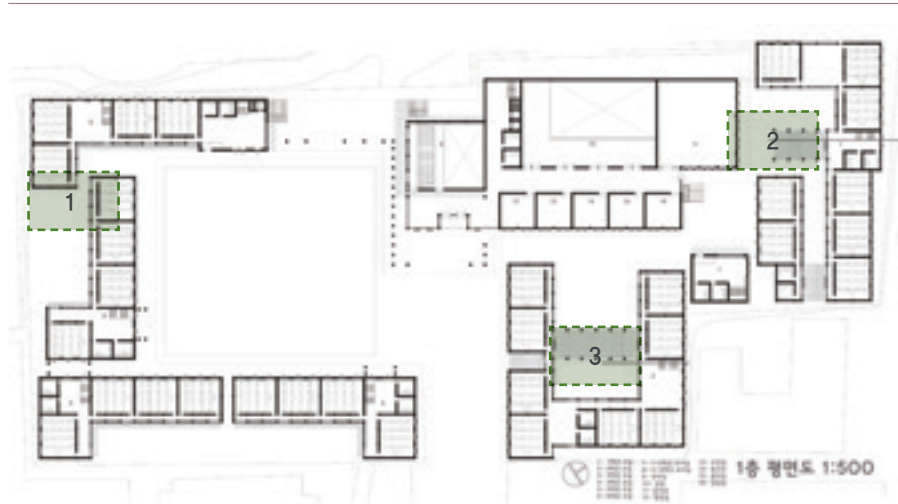
# 계획부문 입선

## 공공(空共)

부산대학교  
김지연



### 1층 평면도



### 공간구성

한옥 초등학교가 단순히 기와지붕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한옥마을처럼 되는 것을 기본 공간구성으로 삼고 설계를 진행하였다. 기본 구조는 목구조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같이 쓰여서 공사비를 줄이고 목구조의 한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생각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실은 목구조로 하였고 각 학년별로 마당과 마루, 다락방을 각각의 학년에 특성에 맞게 설계하였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개방적인 마당의 성격을 가지고 운동장에서 가장 가까운 학년은 고학년으로 하여 운동장과 마당사이의 관계도 개방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였다.

교실이 아닌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하였다. 중심부의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 4층의 행정실, 교무실, 국악당, 강당 등을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목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결합시킨 것이 아니다. 한옥과 철근 콘크리트 부분이 조화롭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한옥의 기본 스케일을 기준으로 목구조인 교실을 배치하고 한옥의 담장과 기단의 느낌이 들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였다.

이로써 고층이지만 한옥의 스케일과 거부감이 들지 않는 신도시형 다층 한옥 초등학교를 설계하게 되었다.

### 남측면도



### 남동측면도



### 북서측면도



한옥, ( ) 꿈을 담다.

일상 속 한옥

일상 속에서 한옥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찾아보기가 더 쉽지 않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옥이 일상과 분리된 과거의 한옥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심 속 한옥이 필요하고 유효하려면 한옥이 더 이상 일상과 분리된 과거의 한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담은 일상 속 한옥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고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한옥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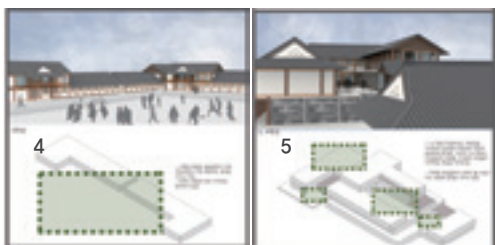
프로그램-초등학교

이러한 특성을 담은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기초는 초등학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한옥이 된다면 더 이상 한옥이 일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도심지역에서 한옥으로 된 초등학교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한옥의 다층화라는 한계 때문이다. 도시지역에서 초등학교는 정원이 많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3층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의 한옥은 최대 2층이라는 구조, 디자인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개량하고 목구조의 막대한 공사비를 극복한다면 도심지역에서도 충분히 한옥 초등학교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도심지역 주민들도 한옥이 일상이 되고 한옥이 다양한 꿈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사이트- 광교신도시 신풍초등학교

사이트는 도심 속 한옥을 접할 기회가 훨씬 적은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기존의 신 도시형 초등학교가 한옥초등학교로 변하면서 한옥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신도시의 아이들이 한옥에서 배우고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한옥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한 이 사이트는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신풍초등학교이다. 현재의 신풍초등학교는 국악특성화학교이지만 지금의 모습에서는 단순히 국악을 배울 뿐 우리 국민의 정서를 배운다는 특성이 반영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한옥초등학교가 되면 국악특성화 학교의 특성도 살리면서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과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교실과 함께 재능기부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여 국악과 우리 국민의 정서 또한 담을 수 있는 한옥 초등학교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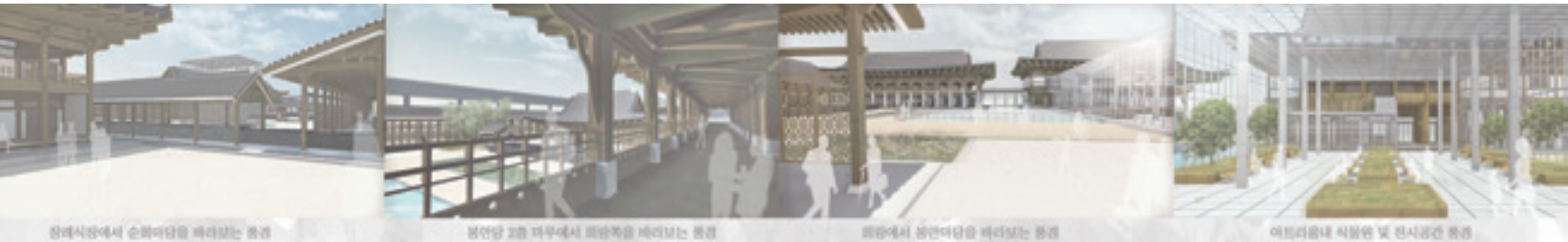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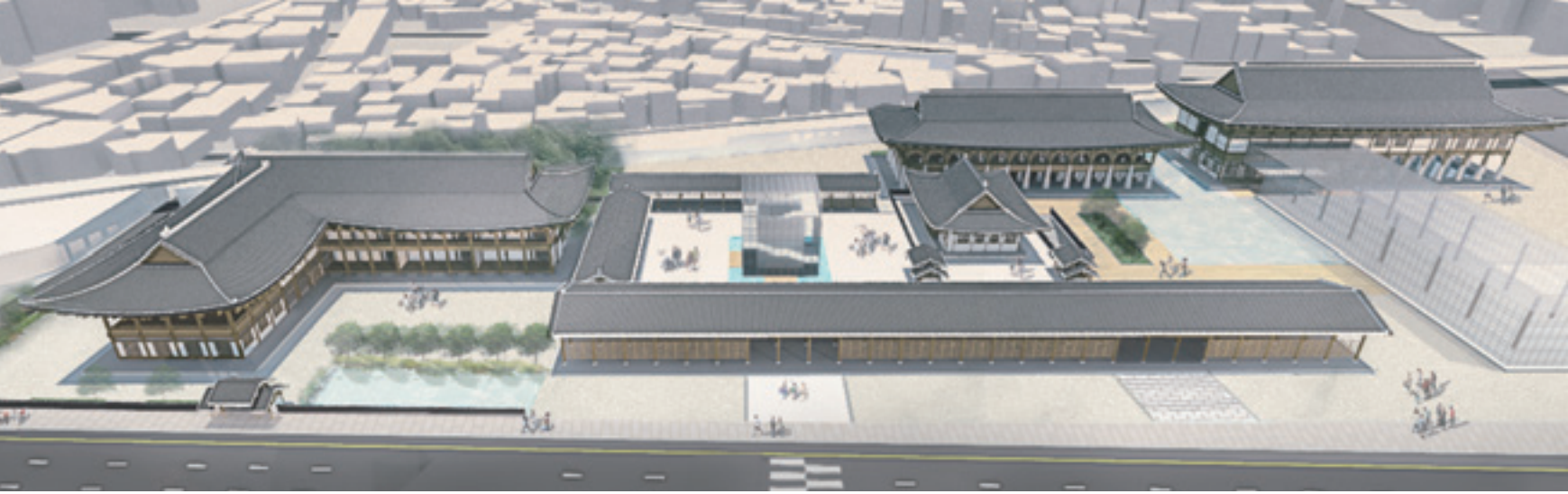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계획부문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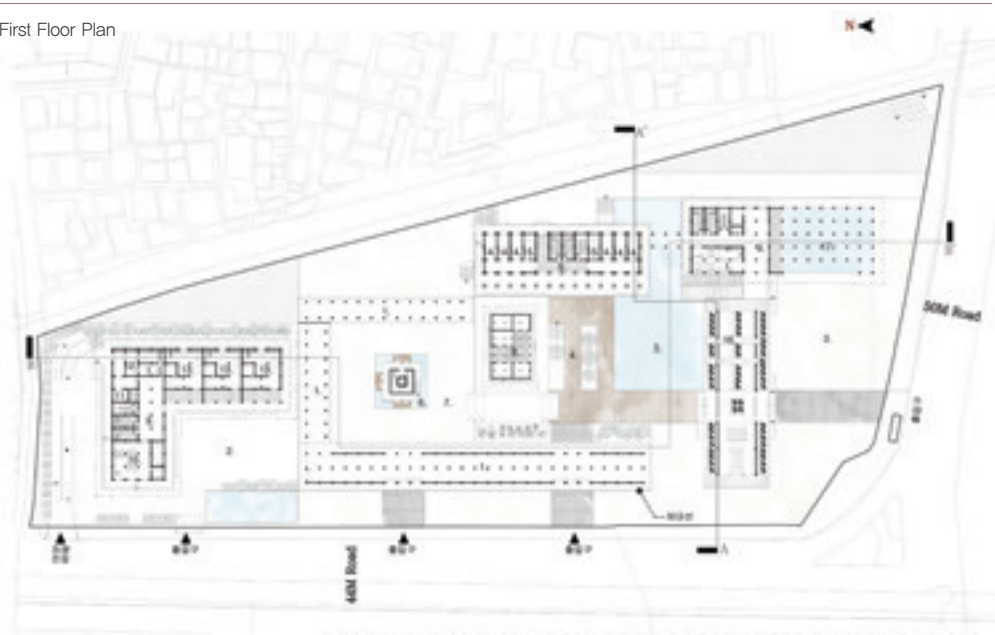
한옥, ( ) 꿈을  
담다.

아주대학교  
정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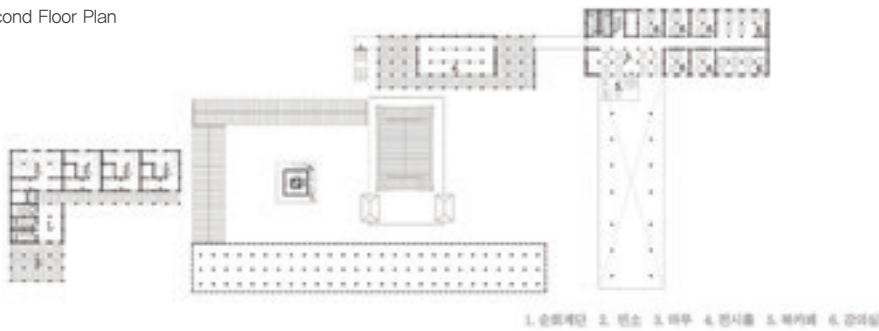
Floor Plan

First Floor Plan



1. 회양전시공간 2. 제당 3. 공방 4. 복안마당 5. 복안문 6. 순화계단 7. 순화계당 8. 제정공간 9. 통 10. 사무실 11. 영정실 12. 사당안치실 13. 연소 14. 복안당 15. 제례실 16. 원화실 17. 관후시물방

Second Floor Plan



Elevation Scale : 1/800



Section Scale : 1/800







① 자형 TYPE : A



② 자형 TYPE : B



③ 자형 TYPE : A



④ 자형 TYPE : B



⑤ 자형 TYPE : A



⑥ 자형 TYPE : B





For Me, Form E (나를 위한, 무한한 형태)

담기는 사람에 따라 변화하는 한옥\_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품의 대량생산을 가져다주었다. 현재 아파트를 포함한 많은 주거의 형태를 포함하여 건축물들 또한 일종의 건축적 대량생산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주거형태는 아파트와 같이 획일화 되어있다. 하지만 사람마다 삶의 모습이 다르며 생활상이 다르듯, 삶을 담는 그릇인 '집' 또한 그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집'에 맞추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집'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옥은 최적의 조건이라 생각하였다. 한옥은 기본적으로 가변적인 공간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것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였다. 각각의 생활상에 맞추어 변화 할 수 있는 '한옥의 가능성'을 보았다.

기준\_우리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가운데서 보편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동주거의 새로운 유닛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2030세대를 위한 일인주거, 3050세대를 위한 가정집, 5070세대를 위한 실버주택을 우선적으로 제안해 보았다.



소유의 재해석\_한옥의 담장 안에는 하나의 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 채가 있어 한 가정을 구성하고 담을 통하여 경계를 주고 있다. 우리는 담장 안의 소유의 개념을 바꾸어 채에 각각의 가구가 들어가고 마당은 하나의 공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하나의 형태, 여러 채의 집\_우리는 '한옥'에서의 채와 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주는, 그리고 채와 채를 이어주기도 하는 '마루'와 '대청'을 통해서 공간을 열고 닫음으로써 하나의 형태를 갖춘 한옥에서 여러 기준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였다.



불특정한 대지를 위하여\_수유동에 있는 특정 사이트를 정하여 설계를 하였지만, 어떤 도심지에도 입지할 수 있는 가벽적인 한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공간 여닫기\_대청과 마루를 여닫음으로 공간을 분리시키고, 공간을 합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이번설계에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서 아파트와 차별화된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마루는 '나'와 '타인'사이의 경계가 되어주기도 하며 공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어떠한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계획부문 입선

## For Me, Form E (나를 위한, 무한한 형태)

공주대학교 대학원  
하민수  
박준서





Site Program



—자형 평면도(A형)

1. 현관
2. 거실
3. 주방 / 식당
4. 다용도실
5. 욕실
6. 방



—자형 평면도(B형)

1. 현관
2. 거실
3. 주방 / 식당
4. 다용도실
5. 욕실
6. 방
7. 창고



'한옥스테이' 평면도(리모델링)

1. 솟을대문
2. 창고
3. 현관
4. 거실 / 부엌
5. 욕실
6. 방
7. 방



ㄷ자형 평면도

1. 현관
2. 거실
3. 주방 / 식당
4. 욕실
5. 다용도실
6. 방



ㄱ자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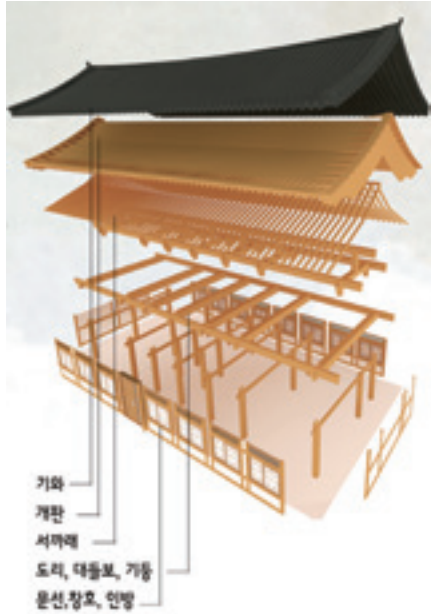
1. 현관
2. 거실
3. 주방 / 식당
4. 다용도실
5. 욕실
6. 방
7. 창고



마인게터(萬人契), 숨을 불어 넣다.

주요 컨셉은 '쉐어하우스' 와 '한옥스테이'의 개념으로 기존의 한옥 중 상태가 양호한 한옥은 구조와 지붕을 살려 '한옥 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낡고 노후한 것은 새롭게 신축하는 것인데 새롭게 짓는 한옥은 외적인 부분은 기존의 한옥을 따르고 내부의 공간구성은 주제의 내용 중에 '오늘 날 우리의 한옥은 충분히 개량을 거쳐 합리적인 가격 경쟁성을 갖추었는가?' 의 내용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였는데 기존의 한옥 평면 구성보다는 현대식의 거실과 주방의 일체 혹은 독립의 부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생각하여 현대식에 맞추어 크게 4가지 타입을 가지고 평면구성을 하였습니다.

# 계획부문 입선



커뮤니티 센터 1층

1. 전망대



커뮤니티 센터 2층

1. 로비
2. 회의실
3. 화장실
4. 대청마루
5. 사랑방
6. 카페
7. 도서실



역사 문화관(리모델링)

1. 전시실
2. 수장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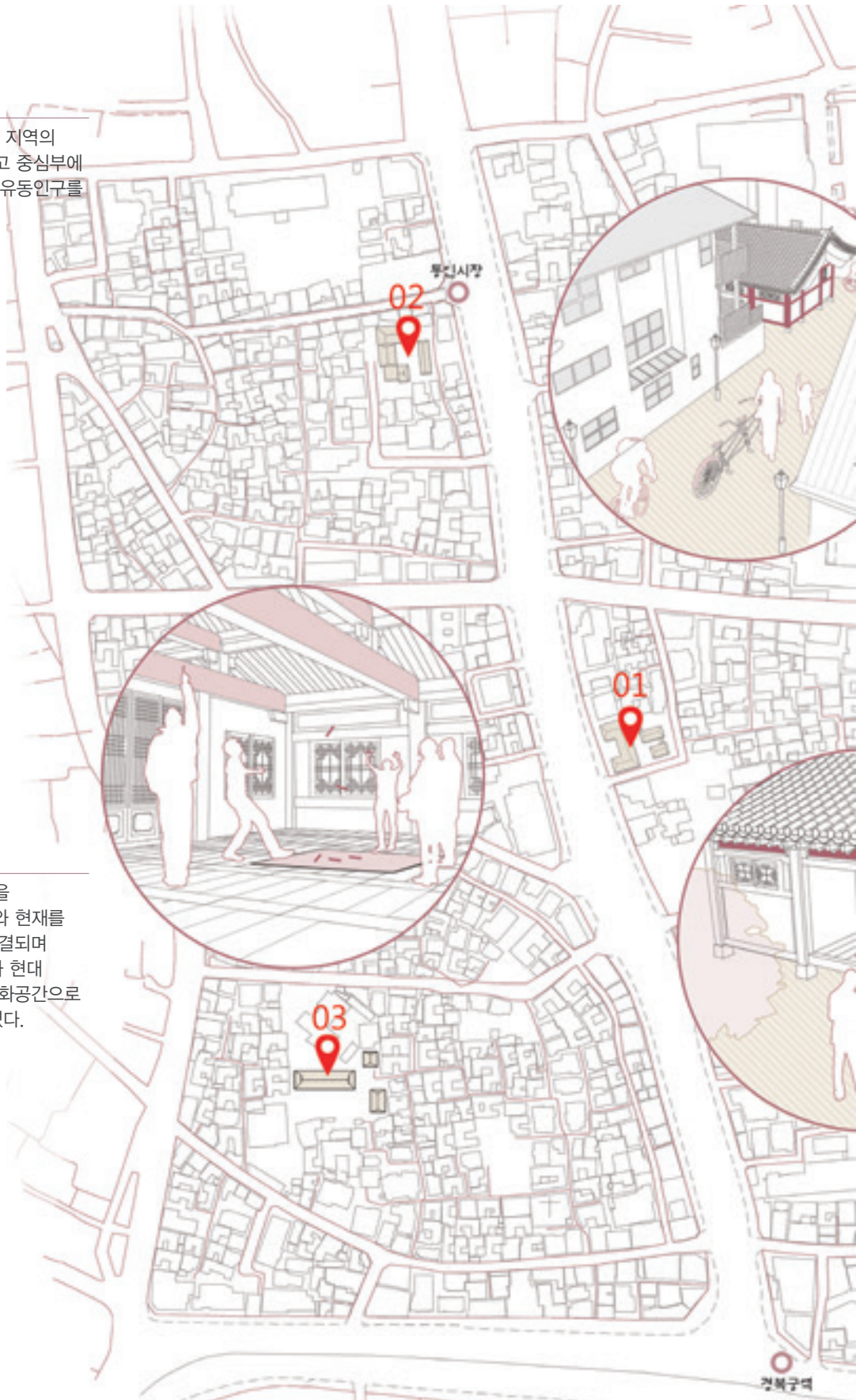
마인게터(萬人契),  
숨을 불어 넣다.

국립목포대학교  
김정기



### 거점1 통인동 우체국 일대

기존의 우체국과 합쳐 네트워크를 형성한 공간과 지역의 안내소 역할을 융합, 지정학적 위치로 역과 가깝고 중심부에 위치, 또한 서촌의 중심이 되는 도로에 인접하여 유동인구를 쉽게 포용한다.



### 거점2 통인동 어린이 작은도서관 일대

어린이 도서관을 합치고 거기에 노인 문화시설을 도입하였다. 어린이 세대와 노인 세대, 즉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것에 의미가 있다. 거점2는 통인시장과 연결되며 각 거주자들이 거주하는 한옥밀집구역의 골목과 현대 건물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지점이다. 복합문화공간으로 거주민과 외부인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형성하였다.



### 거점3 체부동 흥중문가 일대

체부동 흥중문 가옥 일대: 상업화로 인해 누릴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 서촌 지역 중에서 흥중문 가옥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반면, 장점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점을 살린다면 체험의 장으로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방 혹은 민속놀이 전통놀이 체험 등 한옥을 통해 교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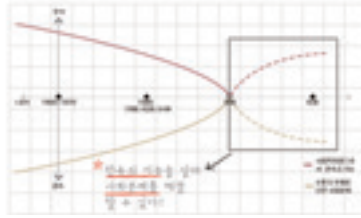


# 계획부문 입선

## 보물찾기

### 과거로부터의 한옥에 대한 고찰

과거 한옥은 시대 가치와 함께 삶의 터전이 되며 지역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확인하고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는 그 고유의 기능을 잃고 존재마저 위협받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로 인한 소통의 부재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는 한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도심 속 한옥

도심의 길거리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뺨뺨이 차있다. 언뜻보면 보이지 않지만, 그 뒤편에 한옥을 볼 수 있다. 한옥은 현대의 건물에 가려 숨겨져 있다. 그로 인해 한옥은 점점 고유의 빛을 잃어 죽어가고 있다. 10년 후, 20년 후의 도심에선 다시 한옥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 건물양식이 아닌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보물이다.



### 서촌이야기

서촌은 한옥 밀집지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서촌은 북촌처럼 관광특화가 되지 않아 관광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 어려움에는 공공시설의 부족, 관광정보 등이 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원주민이 떠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외부인이 새로 유입이 되면서 기존의 커뮤니티가 사라지는 것이다. 게다가 서촌은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서촌은 기존의 색을 잃고 점점 현대 도시를 닮아가고 있다.



### 보물찾기

서촌에서 방문객이 많은 장소에 보물찾기를 위한 세 개의 거점을 정했다. 그 거점은 서촌을 ZONE을 나누어 구획(FOOD, ART, LIFE)하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 부분과 행정구역(통의동, 통인동, 체부동)을 겹치고 골목과 도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접근을 고려하여 정했다.



거점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쉼터,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거점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공간으로 소통의 단절을 극복하며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확립한다. 방문객은 거점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한옥의 정보를 입수한다. 이러한 과정은 숨겨진 보물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정보 입수과정에서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가 일어난다. 이 커뮤니티는 우리사회가 잃어버린 또 하나의 보물이다. 보물은 한옥 혹은 커뮤니티만으로 한정하는 것 이아니라 관람객이 서촌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다.

세 개의 거점은 각각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거기에 공공자전거를 도입해 넓은 서촌을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보물찾기

공주대학교  
조병찬  
조태익  
박정민  
서순호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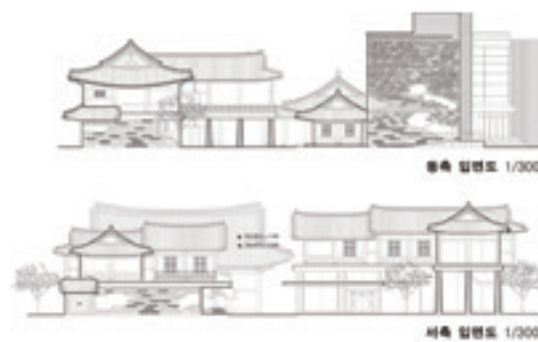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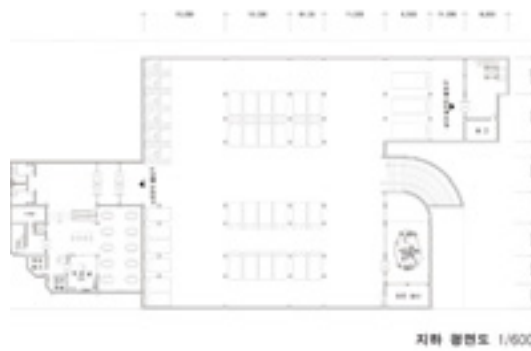
배치도



입면도



지하 평면도



### 영화 할머니, 옛날 얘기 해주세요!

최근의 건축 동향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과 증·개축이 주를 이룬다. 이미 건축물의 공급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건축물을 새로 다듬어 비용을 절감하고 수명을 늘린다. 이는 도심일수록 더욱 해당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도심 속 한옥'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방식으로 신축이 아닌, 증·개축을 통해 한옥으로 도심 속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52'는 현재 대한노인회(지하 1층, 지상 3층)건물과 어린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인회관은 장안구 전체의 노인수요를 감당하기에 그 규모가 부족하며, 어린이 공원 또한 주거지역인 주변 어린이집의 야외활동 장소로 이용되나,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공원에 가건물(컨테이너)로 자율방범대가 위치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여, 공원이 노숙자들의 거처로 점령된 상태이며, 낡은 시설 탓에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노인회관 증·개축은 이런 상황에서 출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직·간접적 건축언어로 공원 전체를 감싸는 바운더리를 형성, 이용자 외의 접근을 차단한다. 기존 자율방범대 공간은 정식으로 건물 프로그램으로 배치하여 노숙자와 범죄 문제를 해결하였다. 주 이용자 시설은 노인과 어린이로 명확히 구분, 배치해 부족한 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 공원은 높은 층고로 실내화하여 안전성을 보완했다. 두 이용자층의 공간은 분리했지만, 공원 녹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간적인 경계, 세대 간 간극을 허물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주변에 대한 배려로 인접한 화성의 전통 쌓기를 차용해, 노인회관 건물의 조적 입면을 연장하여, 저층부 입면이 자연스레 기단 역할로 이어지도록 구성하고 다양한 다세대주택의 입면을 고려해, 마주보는 건물 입면의 색을 전통에 소극 적용하여 주변 흐름이 자연스레 이어지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적으로도 주민센터와 전시관, 시청각실을 추가하여 일대의 주민들도 적극 활용가능하게 하였다. 즉, '배려'를 중점으로 심리적 경계형성과 공간적 개방을 통해 어린이와 어른,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을 완성했다.

## 계획부문 입선

### 영화 할머니, 옛날 얘기 해주세요!

명지대학교  
조영경



##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품집

발행처 | 국토교통부

전 화 | 044.201.3783

팩 스 | 044.201.5574

인 쇄 | 2016년 12월 12일

발 행 | 2016년 12월 16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전 화 | 044.417.9600

팩 스 | 044.417.9608

이메일 | hanok@auri.re.kr

홈페이지 | <http://hanokdb.kr>

2016©국토교통부

이 책은 수상자들의 동의하에 국토교통부가 편집한 출판물로  
각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